

2 0 1 8
문화연대
정기총회

2018년 2월 22일(목) 18:30, 청년문화공간JU 3층 바실리오홀

정기총회 순서

인사말

참석자 소개 및 인사

2017년 문화연대 활동평가 발표 및 논의

감사보고

2018년 문화연대 활동계획 발표 및 논의

임원인선

활동결의

더 이야기하는 시간

자료집 순서

2017년 문화연대 활동평가	5
2017년 문화연대 재정결산	39
감사보고	41
2018년 문화연대 활동계획	42
2018년 문화연대 재정계획	65
임원인선(안)	67
부록	68
2017년 문화연대 주요활동일지	
문화연대 정관	
문화연대 성차별·성폭력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	

2017년 문화연대 활동평가

1. 총괄평가

박근혜 퇴진 구호와 함께 시작한 2017년, 문화연대는 새로운 조직강화 플랜인 ‘트리플3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1) 문화정책센터, 문화사회연구소, 시민자치문화센터 등 3개 상설조직의 위상 강화와 (2)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분단문화연구위원회, 4차예술혁명네트워크 등 3개 위원회 구성, (3) 블랙리스트특위, 재정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등 3개 특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함. 이는 문화연대 활동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해당기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이어진 운동의제 실천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고민이었음. 문화정책센터의 경우,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제도개선 및 새정부 문화정책 비전 구축 활동 등을 통해 인지도 및 신인도가 커졌고, 인적자원이 강화된 시민자치문화센터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서울제2창의예술교육센터 등 기관위탁사업이 확대되면서 활동영역의 확장과 연계가능성이 커졌음. 또한 문화사회연구소는 강좌, 세미나활동의 안정성 확보와 확장을 위해 2018년 독립공간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음.

3개 위원회의 경우 2017년은 안정적인 운영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음. ‘북중 접경지역 평화기행’(분단문화연구위원회), ‘4차산업혁명, 어디로? 기술사회의 비판적 상상력 토론회’(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월레포럼’(4차예술혁명네트워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대외활동의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음. 3개 위원회 모두 인적자원이 보장된만큼, 2018년에는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반면에 3개 특별위원회 활동은 전반적으로 저조했음. 블랙리스트특위는 문화정책센터 중심의 적폐청산/제도개선 및 새정부 문화정책 비전

구축 활동으로 실질적으로 진행되었고, 평창동계올림픽특위는 별도 대응모임(연대활동)으로 진행되었음. 재정특위는 한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위원회의를 통해 논의, 집행됨. 특위활동은 실행단위/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여 집행력이 담보되지 못하였음.

2017년, 문화연대 활동의 중요한 성과지점은 다음과 같음.

하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진 이후의 대응, 광화문 퇴진캠핑존 운영, 적폐청산 및 문화정책 비전 구축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에서 문화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함. 이를 통해 문화예술 관련 행정, 조직, 정책의 변화 및 문화운동의 지형 변화를 불러옴.

둘. 제작문화, 생활예술 등 새롭게 제기되는 시민자치/문화운동 현장과의 연계활동을 전개함. 제작문화 관련 연구, 콜로키움, 워크숍 등을 개최하면서 기술 및 제작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연구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함. 2018년,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운영, 문화연대 생활예술위원회 발족 등으로 활동의 성과가 이어짐.

셋. 2017년 두 번째 문화활동가대회 개최를 통해 전국의 문화활동가들이 1년에 한 번 교류/토론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였음. 2017년 문화활동가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면서 대전지역 문화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협업체제로 진행, 향후 문화활동가대회 준비 틀이 갖추어짐.

넷. 문화연대 조직운영 안정화, 내실있는 후원의 밤 준비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남김. 사무처 1인 포함 상근활동가 2인 충원 이후 조직역량의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조직운영의 기초를 갖추었음. 홈페이지 리뉴얼, 연락처 정비, 활동홍보 및 회원사업,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논의 등. 후원의 밤 또한 준비과정에서부터 집중력이 발휘되어 후원금 뿐 아니라 과정에서의 성과 또한 컸음.

반면에, 문화연대 연대활동의 내/외연에 대한 부분과 활동성과의 축적에 대한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큼.

다섯. 블랙리스트 사태 대응, 문화활동가대회 개최 등 문화예술 관련 중요한 사회적 활동에 중요하게 참여하면서, 다른 분야/영역과의 사회적 연대활동의 외연은 다소 축소될 수밖에 없었음. 콜트콜텍 등 투쟁현장과 연계한 예술행동,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생태운동과의 연대활동 등은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나, 문화연대의 사회적 연대운동 전략에 기반한 노동/여성/소수자/생태/지역운동 등과의 외연확장은 부족하였음.

여섯. 문화연대 활동기구를 가로지르는 내적 협력과 연계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였음. 2017년, 4개의 기구별 협력활동을 선정하고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었음. 하지만 협력활동 외 기구별로 진행되는 활동에 대한 내부토론과 공동기획/실천을 부족으로 기구/활동별로 활동가들이 고립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함.

일곱.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연대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들 활동의 결과/성과물이 문화연대 내부로 축적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문화연대 활동가들의 개인 역량의 발휘가 문화연대 조직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함.

한편,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을 포함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에 대한 평가지점도 존재. 광화문캠핑촌 활동 이후 캠핑촌에서 함께 했던 투쟁단위들과의 연대활동이 많아진 반면,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경우 문화제를 중심으로 한 고정적인 연대활동을 중심으로만 활동이 진행됨. 콜트콜텍 연대활동의 경우, 2018년 활동을 준비하면서 당사자 논의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전달해놓은 상황임. 이 외에도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만들기 사업에 연대하여 설립 및 운영의 주체로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공간운영 방식에서 문화적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노동자들의 쉼터이면서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음. 또한, 2011년 희망버스를 시작으로 10여년간 연대활동으로 함께 했던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 하반기 출범한 '직장갑질119' 활동에 연대하여 갑질 유형별 모임을 만들고 이를 오프라인 사업으로 확장하여 '어른이 보는 갑질119 동화책 만들기' 및 '오프라인 파티' 등을 기획 실행하였음. 문화예술계 갑질의 경우, 문화예술계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신고 채널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 진행 중.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 동안 문화연대는 꾸준히 문화운동의 현장을 지키며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그리고,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2017년의 한국사회/문화예술의 현장에서 문화연대는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 2018년 문화연대는 지난 10년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가 맞이한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2. 기구간 협력활동 평가

2-1. 새정부 문화정책 감시개혁 및 대안제시 활동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p>문화연대 새 정부 문화정책 감시 및 개혁 활동</p>	<p>1. 2017년 대통령선거 관련 활동 (1) 사회적 토론을 통해 새 정부 문화공약 및 문화정책 제시 (3)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문화정책 3대 원칙 협약 추진 :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문화행정 혁신, 협치 기반 마련</p> <p>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활동 (1)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TF 제안 및 운영 (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및 참여 (3)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 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소송 진행</p> <p>3. 새 정부 문화정책 수립 관련 협치 활동 (1) 새 예술정책 TF 참여 (2) 새 정부 문화정책준비단 참여</p> <p>4. 기타 (1) 헌법 개정, 문화 법제도 정비, 문화예술노동 문제, e나라도움 등 문화예술계 주요 정책 이슈 대응 (2) 지역발전위원회, 용산공원위원회 등 관련 정책 협치 참여</p>
<p>문화예술단체 공동 대응활동</p>	<p>1. 2017년 대통령선거 관련 공동대응 활동 기획 및 운영</p> <p>2.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원회(이하 문화민주주의위원회) 발족 및 지원 (1) 문화민주주의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선임, 사무국 설치 등 활성화 지원 (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공동기획 및 참여 (3) 새 정부 문화정책 감시개혁 및 협치 활동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위원회 참여 (5) 파인텍 굴뚝농성 등 사회적 연대 활동</p>

2) 활동평가

(1) 총평

-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연속 선상에서 2017 대통령선거 관련 활동, 새 정부 문화정책 감시개혁 및 대안제시 활동, 문화예술계 사회적 연대 운동 지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음
- 새 정부의 등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규명,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혁신 등을 통해 국가 문화정책 감시개혁 활동 활성화
- 블랙리스트 사태와 박근혜 퇴진 운동을 경유하면서 문화예술계의 공동대응 활동도 활성화 되었으며, 문화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등에 있어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했다고 평가됨
- 문화연대 문화정책 역량이 새 정부, 사회적 연대 등에 집중되어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내부의 역량 및 주체 축적에는 한계가 있었음

(2) 사업별 평가

① 문화연대 새 정부 문화정책 감시 및 개혁 활동

- 새 정부 문화정책 감시개혁 및 대안제시 활동의 이니셔티브 확보
- 새 정부 문화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 그리고 협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새 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협치가 형식화되지 않고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의 본질적인 개혁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비판적인 실천 필요
- 새 정부 문화정책 감시 및 개혁 활동 과정이 문화연대 내부 활동과 운동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활동 구조 마련 필요

② 문화예술단체 공동 대응활동

- 문화민주주의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등을 통해 상실적인 문화예술단체 협력 활동의 거점 마련
- 문화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안정화, 정책 전문성 강화 등에 문화연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

- 문화연대에 대한 문화민주주의위원회의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점이 존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단체 사회적 연대 활동의 기반과 역량이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연대와 타 단체들 사이의 협력 필요
- 문화예술단체들의 공동 활동이 수도권이나 특정 단체들의 연대활동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 속에서 운동성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과 실천 필요

2-2.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아카이브 기획팀 구성	상근활동가 4인 + 외부전문가 3인으로 기획팀 구성 총9차례 기획팀 회의 진행(월1회) 자료수집 방법, 분류체계, 분류 등 역할분담하여 진행 2018년에도 아카이브 기획단 지속운영 예정
아카이브 자료수집	집행위원, 상근활동가 일부 디지털자료 제출 제출받은 디지털자료 및 이전 홈페이지 자료(약 1만건)를 중심으로 분류작업 진행(미완료)
아카이브 분류체계 수립	외부 아카이브 구축 답사(NPO지원센터, 서울기록원, 인권연구소 창)) 기획팀 회의를 통해 분류체계 완료
문화연대 아카이브 1차 구축	애초 목표였던 아카이브 구축은 하지 못함

2) 활동평가

- 문화연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기획단이 구성되고, 1년 동안 지속 운영된 것은 큰 성과. 이경래, 문찬일, 임광섭 등 외부 전문가 3인과 문화연대 상근활동가 4인이 참여. 총9차례의 기획팀 회의 및 외부 아카이브 사례 답사(인권연구소 창)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연대 아카이브 분류체계 완성.

- 하지만 애초 목표로 한 문화연대 아카이브 (1차) 구축에는 실패. 문화연대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 논의,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자료수집 및 자료분류 등이 이유. 실제 자료분류를

상근활동가들이 많이 담당해야 하는데 자료분류에 투여할 시간이 부족. 2018년에는 자원활동가 풀을 활용하여 아카이브 자료를 분류할 필요 있음.

- 아카이브 기획팀은 2018년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의지가 큼(참여 중인 외부 전문가들의 의지 높음). 시민단체 아카이브라는 전례없는 활동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확산(학회 발표 등)하고, 문화연대 문서분류체계나 협업툴 구축, 문화연대 20주년 준비 등 이후 활동과제도 스스로 설정하고 있음.

2-3. 2017 문화활동가대회

1) 대회 개요

- 대회 기간 : 9월 1일(금) ~ 2일(토)
- 대회 장소 : 옛 충남도청사와 그 앞 시민대학 건물
- 대회 슬로건 : 접촉불량 × 문화지대전
 - ※ 우리 안의 연결과 연대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문화활동 내 '접촉불량'이라는 상황을 문제(사건)화 해보자는 의도. 각각의 섹션을 통해 지역과 지역, 청년과 비청년, 지원기관과 현장, 정책과 활동, 활동공간과 여성,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등의 접촉과 비접촉의 문제를 다룸. '문화지대전'은 개최지 '문화지 + 대전'을 부각하는 동시에, 다양한 영역과 층위의 '문화지대'가 '전戰'-각축을 벌이다는 역동성을 중의적으로 표현
- 대회 프로그램 : 메인 프로그램 3개, 자유 프로그램 11개
 - ※ 교류공간으로 'cafe 48시간이 모자라' 운영 (구석으로부터) : 음료, 먹거리, 맥주 판매
 - ※ 'cafe 48시간이 모자라' 공간 구성 : 48 cafe, 48 탁구실, 48 휴게실, 48 텐트
 - ※ 'cafe 48시간이 모자라' 상설 프로그램 : '문화활동가는 누구인가' 말 짓기, 브로셔 및 굿즈 마켓
 - ※ 'cafe 48시간이 모자라' 시간대별 프로그램 : 낮잠자기, 소울카드/타로카드, 명때리기 등
- 대회 조직위원회 : 18개의 단체 및 기관, 100명의 개인
- 주최 및 협력 : 문화활동가대회 조직위원회, 대전문화재단
- 대회 홈페이지 : www.culturalactivist.net

2) 대회 프로그램 현황

- 접촉불량 고장수리 프로젝트
 - *끄덕이기 토닥이기 | 토크쇼 | 청년 노이로제 : '탈脫청년'을 이야기하다
 - *만나기 놀기 | 네트워크 파티 | 너랑 나랑은 대전에서 만났다
 - *말하기 듣기 | 릴레이 자유발언 | 연결과 연대를 위한, 100명의 이야기

- 모여서 떠들고 꿈꾸는, 문화지대전
 - *라운드테이블 | 그들은 왜 '프로그램 공모방식'을 주장하는가 : 예술강사 고용안정을 둘러싼 쟁점들
 - *포럼 | 축제불가 : 다양한 지역, 획일적 축제라는 역설
 - *라운드테이블 | 2018년 지방선거를 대하는 문화활동가의 몇 가지 태도와 마음의 준비
 - *라운드테이블 | 종합예술의 원형으로서 '무속'만나기 : 굿과 무속에 대한 오해와 편견
 - *라운드테이블 | 탈북인이 말하는 마음의 분단, 분단과 통일에 관한 문화운동의 상상
 - *토론회 | 블랙리스트 너머, 문화정책 리빌딩을 위한 현장의 고민과 상상력
 - *토론회 |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기초문화재단의 사명과 역할
 - *라운드테이블 | 4차 산업혁명의 본말전도 : 창작자에게 기술을 허하라
 - *라운드테이블 | 도시와 재생에 관한 문화적 접근과 협력자 네트워킹
 - *라운드테이블 | 노는 언니들 이야기 : 여성활동가들의 삶과 활동
 - *포럼 | 예술인 매개사업 힘껏 째려보기 : 노동인가. 복지인가. 예술인가

3) 활동평가

- ① 대전문화재단의 적극적 역할
 - 재단 대표의 관심사업 : 신속하고 호의적인 의사결정 가능
 - 대전 문화활동가들과 조직위원회를 원활히 매개 : 도시여행자, 구석으로부터 등
 - 기획단 초기부터 재단 직원이 의욕적으로 결합 : 기획단 회의 안정화
 -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섹션 기획 및 진행 : 여성활동가 섹션, 과학기술 섹션
 - 장소/기자재 사용, 숙박,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 패널 사례비 지급 등 실무 담당
 - 대전 및 충남지역 문화활동가 대회 참여 조직 : 대회 전체 참여자 수의 절반

- ② 대전지역 문화활동가들과의 활발한 협업
 - 대회 컨셉과 슬로건부터 운영상의 디테일까지 활발한 의사소통

- 네트워크 파티, CAFE 48시간이 모자라, 홍보물 디자인 등의 실무 담당
- 문화연대 활동가들과 대전지역 활동가들 간에 호감적인 관계 형성

③ '접촉불량' 슬로건에 대한 긍정적 반응

- 2016년에 비해 슬로건에 대한 반응이 많았고,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
- 문화활동가대회의 취지가 활동가 간의, 혹은 활동 간의 접촉을 위한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는데, 올해 슬로건을 통해 흡수력이 높아짐
- 산만해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연결고리로 작용

④ 대회 하이лай트로 자리매김한 '네트워크 파티'

- 지역 개최의 장점이 가장 잘 발휘되고 드러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확인
- 문화활동가대회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욕구가 '자기소개'와 '연결'이라는 점을 확인
- 대전지역 활동가들의 정성이 돋보였던 시간

⑤ 활동가에 초점을 둔 '탈청년', '여성활동가의 삶과 활동' 섹션에 긍정적 반응

- 전체적으로 정책과 제도적 이슈에 치중된 섹션 구성. 그 중 이 두 가지 섹션이 비교적 차별화되어 문화활동가대회의 성격에 잘 들어맞았다는 평가
- '협력자 만들기'를 내 건 도시재생 섹션도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

⑥ 문화재단 등 중간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참여 늘어남

- 서울지역을 포함해 대전 외 지역에서 참여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문화재단 등 중간지원기관 종사자들로 파악됨

⑦ 문화부장관, 대전광역시장과 부시장,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국장의 축사

- 정치지형의 변화와 대회의 상징성, 대전문화재단의 주도성 등이 추진환경을 만들

4) 총평

- 2017년 대회를 거치면서 문화활동가대회는 어느 정도의 정형과 경향성이 만들어졌고, 대회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임. 문화운동의 이슈와 담론이 오가는 공론의 장, 문화활동가들의 교류의 장, 조직위원회와 중간지원기관(문화재단)의 협업, 수도권 외 지역 개최, 중간지원기관(문화재단) 활동가들의 참여 증가 등. 하지만 동시에 문화활동가대회의 고정된 틀이 생기면서, 내용의 다양성과 주체들의 참여 폭이 좁아질 수 있는 위험도

있음. 이에 대한 대안과 개선노력이 필요함. 또한 대회 준비와 진행에 있어 문화연대 의존성은 여전히 숙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지역 및 현장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해져야 함. 문화연대 내부적으로는 문화활동가대회를 통해 남기려는 성과 목표가 보다 뚜렷해질 필요가 있음. 대회 실무에 치중한 나머지, 대회의 내용적인 성과를 높이고 있다는 내부 평가가 있음.

3. (사)문화사회연구소 2017년 활동평가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p>[조직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및 회원 체계 정리 및 운영위원 재정비 - 소장 반상근 연구 	<p>[조직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으로 박사급 연구원 3명 안료 및 1명 체제 - 소장 2017년 2월~12월 반상근직 수행
<p>[연구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플랫폼의 등장과 대중 형태의 변화 - 사회적 경제의 구성적 맥락 연구 - 북한 문화예술에서의 민중적 요소의 모순적 재현 	<p>[연구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시대의 노동과 일상(한국연구진흥재단) 탈락 - 도시재생과 도시권의 확장 (한국연구진흥재단) 탈락 - “독립연구자의 사회적 권리” 무크지 발행 (이름디온재단) 선정
<p>[강좌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계강좌: 5개 계획 	<p>[강좌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계절마다 강좌: 15개 진행
<p>[월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월담: 3개 계획 	<p>[월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월담: 3개 진행 - 하반기 월담: 4개 진행
<p>[팀블로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블로그 연구원을 재정비 후 2월부터 칼럼 발행 - 연구 및 월담 등 연구소 대내외적인 텍스트 생산 목표 	<p>[팀블로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1회 발행했으나 칼럼으로 전환되지 못함 - 연구원 개별 텍스트 생산 및 플랫폼으로서만 기능
<p>[연대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연구자 복지 정책(프로젝트)은 상반기 이후 타 단위와 함께 진행 계획 	<p>[연대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프로젝트에 선정됨으로써 연구 및 네트워크 진행 중
<p>[페미니즘 세미나-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운영위 회의 때 세미나 운영 - 여성단체와 간담회 및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p>[페미니즘 세미나-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4월까지 진행 이후 중단 - 페미니즘 연구를 끌고 갈 연구원 부족으로 중단

2) 총평

- 2017년에 신규 운영위원으로 2명을 충원하면서 총 10명 이상의 운영위원이 구성되고 3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형성됨으로써 조직 체제 정비 및 연구 활동에 보다 주력함
- 강좌 사업의 경우 매 계절마다 개설하면서 연구소 자체의 고유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매김함. 총 15개의 강좌를 개설했으며 총 191명이 수강하며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함

- 2017년 5월 정기 이사회 때 보고된 계획인 연구 공간 마련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반까지 지속적인 작업을 기울이며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음

3) 사업별 평가

(1) 연구 활동

① 월담

	일정	발표 주제	발표자
연구원 내부 발표	2월	'사회적인 것'의 이데올로기	김성윤
	3월	마르셀 모스와 에드워드 사이드	김주환 / 이종찬
	4월	소중시대의 대중형태, 메이커 컬처	김성윤 / 최혁규
문화산업과 노동	9월	배제되면서 총애받는 것	김도형
	10월	지식노동으로서 문화산업의 노동	한찬희
	11월	아이돌 성공신화와 아이돌 연습생의 딜레마	이종임
	12월	플랫폼 노동, 새로운 위험사회를 알리는 징후	김영선

② 학술단체협의회 연합 심포지엄

일정	발표 주제	발표자/토론자
10월	IMF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전망	김성윤 / 김상민

(2) 회원 사업

① 북토크

일시	발표 주제	발표자/토론자	인원(명)
6월	『포획된 저항』	김주환/김상철	40~45
7월	『나눔의 그늘에 스며들다』	오창은/김정한, 이종찬	35~40

② 네트워크 파티

일시	행사 목표	인원
5월	회원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공간 욕구 파악	30명 내외

(3) 강좌 사업

계획	결과
푸코이론	폐강
이데올로기의 정치	폐강
준계	디아스포라 인문학 [신청자] 3명 [장소] 돌곶이센터
질적연구 방법론	[신청자] 17명 [장소] NPO센터
질적연구 사례해석	[신청자] 18명 [장소] NPO센터
합계	38명
수포자를 위한 사회조사	[신청자] 20명 [장소] NPO센터
문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신청자] 13명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질적연구 방법론	[신청자] 13명 [장소] NPO센터
하계	질적연구 이론적 기초 [신청자] 14명 [장소] NPO센터
물신, 주술 그리고 헤게모니	[신청자] 3명 [장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사회적인 것과 좌파정치의 전망	[신청자] 7명 [장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합계	70명
질적연구 방법론	폐강
질적연구 사례해석	[신청자] 5명 [장소] NPO센터
추계	수포자를 위한 사회조사 폐강
합계	5명
질적연구 방법론	[신청자] 12명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질적연구 사례해석	[신청자] 15명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동계	문화분권시대 문화정책 [신청자] 20명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수포자 통계 리턴	[신청자] 20명 [장소] NPO센터
진보적 정치사회이론의 4가지 고비	[신청자] 11명 [장소] NPO센터

합계	78명
총 계	191명

(4) 프로젝트

No	프로젝트명	금액(천원)
1	공공디자인 해외 정책 및 사례 기초조사 * 기간: 1월~2월	19,000
2	써드라이프: 기술문화 혁명의 시대 * 기간: 6월~12월	30,000
3	NHN 후원 단행본 저서작업 * 기간: 3월~8월	10,000
4	성북구 주거관련 연구 조사 * 기간: 1월~3월	10,000
5	청량리 종합시장 * 기간: 3월 ~ 12월	45,000
6	게임 인문학 교과서 제작 프로젝트 * 기간: 8월 ~	50,000
7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정체성 및 활성화 방안 * 기간: 12월 ~ '18년 2월	19,000
8	독립연구자 네트워크 무크지 발간 * 기간: 12월 ~ '18년 3월	5,000

3) 2017년 재정결산

2017년 수입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회비	CMS	5,485,000	프로젝트	성남 모니터링	1,286,688
				서울시 문화평가	3,500,000
소계	5,485,000	광명 문화민주화도시		14,250,000	
후원금	단체 후원	100,000		성북구 주거연구	10,000,000
	개인 후원	100,000		공공디자인 해외정책	19,000,000
	기타 후원			나주시 중장기연구	36,250,000
소계	200,000	NHN 저서 연구		5,000,000	
사업비	강좌	18,044,000		서드라이프	50,000,000
	세미나 및 월담	226,000		청량리 종합시장	45,277,704
				건가센터	19,000,000
			게임 인문학	50,000,000	

소계		18,270,000		독립연구자 네트워크	5,000,000
기타수입	예금이자	35,925			
	기타수입	10,255,650			
	차입금				
소계		10,291,575	소계		258,564,392
수입 합계			292,810,967		
전년 이월금			36,961,173		
수입 총계			329,772,140		

2017년 지출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인건비	활동비	24,692,652	사업비	월례발표회	1,724,310
	상여금	300,000		세미나	171,250
소계	24,692,652	연대사업		369,980	
운영비	보험료	1,981,640		학진프로젝트	1,368,050
	관리비	1,364,000		총회, 네트워크 파티	1,061,970
	통신비	117,500		강좌	19,294,200
	수수료	278,100	북토크	503,800	
	회의비	842,440	소계	23,989,760	
	세금과공과	781,210	프로젝트	광명 문화민주화도시	12,798,000
	소모품비	212,810		서울시 문화평가	4,170,200
	여비교통비	54,100		성북 창조문화도시	10,436,820
	도서인쇄비	403,000		공공디자인 해외정책	18,033,000
	발송비	44,480		나주시 중장기연구	31,977,500
	경조사비	100,000		성북 주거관련 연구	9,002,500
	복리후생비	343,000		NHN 저서 연구	3,000,000
	교육훈련비	180,000		서드라이프	49,854,295
소계	31,214,932	청량리 종합시장		46,193,328	
기타지출	학단협 회비	300,000		건가센터	13,556,700
	문화과학북클럽	17,800	게임인문학	37,000,000	
	기타지출	500,000			
	2017년 원천징수	5,690,830			
소계	32,032,732	소계		223,012,103	
지출 합계			298,719,465		
차년 이월금			31,052,675		
지출 총계			329,772,140		

4. 문화정책센터 2017년 활동평가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문화정책 감시개혁운동 전문성 및 일상성 강화	1.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문화연대 문화정책 풀 및 협력 주체 형성 및 활성화
문화정책 활동의 사회적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1.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2. 문화연대 문화정책플랫폼2020의 경우 활성화되지 못함
* 문화연대 “기구 간 주요 협력활동보고” 참조	
정부의 문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감시개혁 및 대안제시 활동 활성화	1. 2017년 대통령선거 관련 활동 진행 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발방지 활동 진행 3. 새 정부 문화정책 수립 관련 협치 활동 진행 4. 기타 문화정책 현안 대응 활동 진행

2) 활동평가

(1) 총평

- 지난 2017년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는 블랙리스트 사태 후속 대응, 새 정부 문화정책 감시개혁 활동,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성북구 등) 관련 협치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 문화정책을 둘러싼 문화연대의 사회적 활동력, 영향력 등은 크게 확장되었으며 중요하고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음
- 문화연대의 문화정책 관련 사회적 활동이 확대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주체의 폭이 좁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적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자체 운영 활성화 및 체계화는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계획과 집행이 2018년에 필요한 상황

(2) 사업별 평가

① 문화정책 감시개혁운동 전문성 및 일상성 강화

- 문화정책 전문가들로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정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중요한 성과
- 하지만 구성원들이 대부분 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인해 자체 운영 참여에 제약과 어려움이 존재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정책위원으로서의 참여 동기와 구체성이 담보될 수 있는 운영 방식 기획 필요

② 문화정책 활동의 사회적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적폐정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화예술단체들 사이의 문화정책 공동대응 및 사회적 공유를 위한 상설 연대체 마련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던 문화정책플랫폼2020의 경우 외부적인 환경 변화(블랙리스트 사태, 박근혜 퇴진, 새 정부 출범 및 협치 활성화 등)로 인해 자체적인 동력을 상실하여 운영의 어려움 존재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차원에서 정책 전문가 풀 및 협력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전문가 풀 확보, 젊은 정책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타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 활동 등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③ 정부의 문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감시개혁 및 대안제시 활동 활성화

*문화연대 “기구 간 주요 협력활동보고” 참조

- 2017년 대통령선거 관련 활동 진행,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발방지 활동 진행, 새 정부 문화정책 수립 관련 협치 활동 진행, 기타 문화정책 현안 대응 활동 진행 등 중요하고 다양한 활동 전개

5. (사)시민자치문화센터 2017년 활동평가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이사회 정례화 법인운영 안정화	이사회 3회 개최. 이사회 정례화 못함 4월, 김재상 활동가 총원 ※ 2018년 2월, 김재상 활동가 문화정책센터로 이전. 김소형 활동가 총원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 운영	운영위원회 참여 직원 채용, 사업 심사 및 평가 참여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동 기획 및 개최 하반기 법인 연례 감사 진행 김명신 센터장 사임 ※ 2018년 1월 15일, 권금상 센터장 취임
문화기반시설 공공성 강화	운영위원회 참여 돌곳이생활예술문화센터 개관행사 2017 서울여성공예포럼 기획 및 운영 (용역) 2018년 민간위탁 추진 2018년 수탁 준비 ※ 2018년 1월, 수탁 확정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수탁 추진	수탁 준비 TF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동가그룹 구성 및 운영 2018년 수탁 준비 ※ 2018년 1월,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문화운동주체 네트워크 활성화	4월 7일, 대선 특별기획 ‘백가쟁명’ 개최 9월 1일 ~ 2일, 2017 문화활동가대회 개최 (대전) ※ 대회 평가내용 별도 기술 : p** 참고
생태문화운동 활성화	11월부터 ‘에코라이브러리’ TF 운영 도서문화재단 씨앗에 ‘에코라이브러리’ 사업 제안 ※ 2018년 1월, 에코라이브러리 컨설팅 진행 (용역)

	'이야기청'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4월, '이야기 들어주는 집' 프로젝트 첫 미팅 5월, 서울문화재단 Y프로젝트 공모사업 신청 6월, '이야기청' 프로젝트 시작 11월 17일 ~ 29일, '이야기청' 워크샵 & 전시
지역문화운동 활성화	마포 로컬리스트 아카데미,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 기획 및 진행	마포 시민협력플랫폼 운영위원회 참여 3월부터 마포 로컬리스트 아카데미 기획 7월 ~ 8월, 마포 로컬리스트 아카데미 진행 9월부터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 기획 11월 16일 ~ 18일,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 진행
시민교육 플랫폼 만들기	'시민문화아카데미' 추진	시민문화아카데미 TF 구성 및 운영 파일럿 프로그램 단계에서 2018년으로 사업 연기 ※ 2018년 문화연대 사무처에서 사업 추진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손끝창의학교' 기획 및 진행 '삼:일캠프' 기획 및 진행	세운공공과 MOU 체결 9월 ~ 12월, '손끝창의학교' 기획 및 운영 12월, 광주 삼디자인센터 청소년캠프 기획 ※ 2018년 1월, 청소년캠프 '삼:일캠프' 진행

2) 활동평가

(1) 총평

- 2017년 조직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많아지고 다양해진 활동가풀. 하반기 돌곶이생활예술 문화센터와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수탁 준비과정에서 시민자치문화센터 활동가풀이 대폭 확장되었음. 활동가풀이 넓어지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졌고, 복잡하고 어려운 수탁 준비작업도 일정에 맞춰 진척시킬 수 있었음. 또한 새로운 활동가들이 정체되어 있던 기존의 조직 운영에 새로운 긴장과 자극을 더하면서 조직의 운동능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음.

- 전년도에 비해 문화기반시설 수탁과 운영에 더 큰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지만, 여전히 시설별로 거버넌스 구조는 취약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인 역량은 구축되

지 못한 상태. 더 본질적인 문제는 시민(운동)사회에 기반한 법인체라는 고유성과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법인과 시설 활동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생각과 활동의 공통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적절한 방법과 프로세스가 고안될 필요가 있음.

- 목표했던 이사회 정례화, 업무의 체계화, 활동의 기록화 등 법인 운영의 루틴을 만드는 일은 잘 되지 않았음. 위탁시설이 3곳으로 늘어나는 2018년에는 법인 내부의 루틴한 운영관리 업무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사업규모와 함께 조직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맞는 조직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 또한 법인이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구성하고 재배열 할지에 대한 내부 토론의 기회가 많아져야 함.

(2) 사업별 평가

① 문화기반시설 공공성 강화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돌곳이생활예술문화센터,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전히 법인과외의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존에 유지해온 사업구조가 견고한 편이고, 법인 역시 가족의제를 사업화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부족해 사업적 협력에는 한계를 보였음. 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함께 기획해 진행한 것은 성과. 센터 외연의 확장과 광역센터로서의 새로운 정체성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법인과 센터가 인식을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전년도 문제가 되었던 센터장의 독단적인 조직 운영은 지난해에도 계속 이어져 지난 해 말에는 직원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표면화됨. 법인은 기민하게 관여했고, 모법인의 위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올해 초 신임 센터장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진정국면에 접어듦.

- 돌곳이생활예술문화센터는 지난해 초 민간위탁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구청 직영 상태에서 활동가를 파견해 협력 운영함. 민간 주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관협력의 조건을 만들어 온 것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작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성과. 다만 프로그램 기자재 부족, 적은 사업비 등 구청의 소극적 투자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어 진행된 점은 아쉬움. 지난해 말 민간위탁 방침이 확정된 후, 돌곳이생활예술문화센터 수탁을 위한 TF를 구성. 올해 1월 수탁이 확정되어, 2월 1일자로 운영 시작.

-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는 지난 해 12월 프로그램 위탁 공고, 올해 1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2월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순환협동조합

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지난 해 9월에 만든 문화예술교육팀이 주축이 되어 사업제안서를 준비. 전체 위탁과 다르게 프로그램 위탁은 민간 사업주체의 권한과 자율성에 제약이 많은 편. 대등한 위치에서의 민관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 숙제.

② 문화운동주체 네트워크 활성화 : 문화활동가대회

- 기구간 협력활동 보고 참조

③ 생태문화운동 활성화 : 에코라이브러리

- 도시 안에서 생태적 생활방식을 경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주의 시민공간을 만들 보자는 임정희 이사장의 제안으로 시작. 지난 해 11월 에코라이브러리 TF를 만들어 사업 제안을 위한 기초작업 진행. 지금은 도서문화재단 씨앗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구체화하는 연구 용역을 받아 추가 제안자료를 만들고 있음. 큰 재원, 많은 네트워크 자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끈기있는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8년에는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것과 동시에 좋은 사업 파트너들을 발굴해 연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④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 손끝창의학교, 삶;일캠프

- 지난 해 9월 법인 안에 문화예술교육팀을 만들고,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손끝창의학교는 세운공공과 MOU를 체결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맡아 진행. 손끝창의학교는 세운상가 장인과 일반인(청소년)이 기술과 제작을 매개로 만나는 워크샵 형태의 프로그램. 장인의 준비정도에 따라 편차가 있었으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 특히 후반기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장인이 함께 가상회사를 설립하고 미래사회의 문제를 예측해 솔루션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세운공공과 참여자들로부터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음. 올해 1월 광주 삶디자인센터에서 진행한 청소년 '삶;일캠프'는 손끝창의학교 후반기 프로그램 외에도 헬조선게임, 나만의 노래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체 역량으로 진행함. 2018년에는 제2창의예술교육센터에 거점을 두고 센터 내 외부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2017년 재정결산

(1) 2017년 전체 수입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후원금	개인 후원금	30,463,760	사업비	위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498,551,000
	단체 후원금	41,000,000		용역	나주시 전라도 정명천년 기념사업 연구	17,800,000
					서울여성공예포럼	17,910,000
					서울시 청년예술단포럼	14,500,000
			공모	과학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14,000,000	
			자체		-	
	소계	71,463,760		소계	1,562,761,000	
기타수입	예금 이자	19,119				
	세금 환급	70,000				
	기타	472,155				
	소계	561,274				
				수입 합계	1,634,786,034	
				전년 이월금	2,220,955	
				수입 총계	1,637,006,989	

(2) 2017년 전체 지출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인건비	활동비	55,986,504	사업비	위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498,551,000
	상여금	200,000		용역	나주시 전라도 정명천년 기념사업 연구	16,073,087
소계	56,186,504	서울여성공예포럼			6,628,000	
		서울시 청년예술단포럼			11,229,440	
운영비	보험료	6,921,450	공모	과학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2,022,600	
	세무기장료	1,760,000		자체		-
	통신비	99,330		소계	1,534,504,127	
	수수료	722,300				
	회의비	407,580				
	세금	1,183,130				
	경조사비	-				
	발송/운반	21,000				

	비		
	소모품비	-	
	교통비	21,500	
	인쇄비	170,000	
	소계	11,306,290	
기타	과태료	100,000	
지출	기타	472,155	
	소계	572,155	
			지출 합계
			1,602,569,076
			차년 이월금
			34,437,913
			지출 총계
			1,637,006,989

6.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2017년 활동평가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새로운 환경에서의 미디어(산업)정책의 매핑과 아젠다 제시	·창의산업으로서의 미디어문화산업 육성 정책 마련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현실반영 가능한 미디어 문화 정책마련은 아직 미흡한 상황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한 내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기술+미디어문화실천 영역의 재구성 및 현실 개입의 방향 설정	기술민주주의로서의 시민참여 가능한 대안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필요 -2017년 6월 28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제를 모으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
기술환경 변화와 문화산업 지형 탐색	<서드라이프(Third Life) 포럼 개최> -기술혁명시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포럼개최 ●포럼1: 2017년 5월 24일 :'서드 라이프란 무엇인가?: 기술혁명 시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하여' 이동연(한국종합예술학교) :'4차 산업혁명 혹은 서드 라이프?: 수작과 성찰적 기예의 재구성',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럼2: 2017년 6월 21 :'뉴미디어 기술과 영화 : 관객성의 분화와 유동', 권호창(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서드 라이프에서의 예술: 인공적 현재성과 현재적 가상성', 유원준(엘리스온) ●포럼3: 2017년 7월 19일 :'현실로 들어온 놀이: 서드 라이프 시대 게임의 정체성', 강신규(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모바일 인터페이스의 확장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미래', 이종임(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포럼4: 2017년 8월 23일 :'고시 공화국의 서드 라이프: 이러닝 시장과 학습유충 착취', 임태훈(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털 파생상품으로서의 삶: 센서 사회의 데이터화된 사회, 김상민(서울대학교)

2017년 6월 28일, 카톨릭 회관

<4차 산업혁명 어디로? 기술사회의 비판적 상상력 긴급토론회>
개최

‘테크노문화연구포럼’ 개최

-사회: 원용진(문화연대 공동대표,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표: 이광석(서울과기대)

-토론: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외 7인

2) 활동평가

(1) 총평

- 기술+미디어가 유발하는 다각적 측면의 논의, 기술미디어 관련 정책, 시민민주주의 등을 담론화하는데 성과를 얻었다고 봄. <서드라이프 포럼>을 통해 게임, 놀이, 모바일, 콘텐츠, 라이프스타일의 구체적 현상을 이슈화시킴. 하지만 서드라이프 포럼을 확장시킬 수 있는 언론+기술+대중 담론화를 이끌어내는데에는 미진했다는 내부적 평가

- 2018년에는 <기술+미디어+문화> 관련 논의의 학술적, 대중적 담론화를 위해 학술+현실적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함

(2) 사업별 평가

- ① ‘테크노문화연구포럼’
- ② 서드라이프(Third Life) 포럼
- ③ 4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 관련 협의체 참여

7. 분단문화연구위원회 2017년 활동평가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북·중 접경지역 답사	- 7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 - 총 29명(문화연대 집행위원 3명, 활동가 3명)참가 - 백두산, 연변,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 답사
'탈북인 합동신문 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설명회'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 - 사회 권금상 - 발제자 ; 박주민, 양승원 - 토론자 ; 강릉, 김화순, 서어리

2) 활동평가

(1) 총평

- 분단문화연구위원회 올해 핵심으로 생각한 위원회 조직 및 활성화는 실패했으나, 2가지 사업을 통해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함. 올해 모스크바 답사 및 위원 위촉 등을 통해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자 함.

(2) 사업별 평가

① 북·중 접경지역 답사

- 분단문화연구위원회를 만들고 2년차 가장 큰 일정을 수행함. 이번 답사를 계기로 더 다양한 대중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적, 경험적 토대 마련. 그러나 이후 답사 멤버에 대한 조직화 사업이 부족했음. 분단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이들이 지역적으로 멀고, 또한 아직 문화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아울러 답사 이후 추가 국내 답사를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

② '탈북인 합동신문 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설명회'

- 짧은 준비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함. 법률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홍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018년에 이번 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를 중심으로 집담회 등 후속사업을 준비 중

8. 4차예술혁명네트워크 2017년 활동평가

1) 활동평가(표)

계획	결과
4차예술혁명 네트워크 월례포럼 기획	<p>5월 22일 양철모 작가 스튜디오에서 포럼 성료. 참가자 50여명 가량으로 “4차 예술혁명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논의 및 초대작가 이진경의 작품 세계에 대한 다큐멘터리 <앞산전>을 감상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음.</p> <p>프로그램 및 참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 강윤주 (문화예술경영) - 문화연대 4차예술혁명네트워크 소개 : 강윤주 (문화예술경영) - 4차예술혁명에 대하여 : 노명우 (사회학) - 함께 영화보기 : <앞산전> (다큐멘터리, 71분) - 함께 이야기하기 : 이야기 손님 - 이진경 (작가) <p>-----</p> <p>이후 월례포럼 형태로는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함. 그러나 4차예술혁명네트워크 이름으로 기획한 “문화활동가대회” 포럼은 진행되었음. (아래 참고)</p>
2017년 문화활동가대회 포럼 기획 및 진행	<p>9월 2일 열린 “문화활동가대회” 포럼으로 “예술인 매개사업 힘껏 째러보기 : 노동인가. 복지인가. 예술인가”는 4차예술혁명네트워크 구성원들의 기획 및 운영으로 진행되었음.</p> <p>프로그램 및 참석자:</p> <p>진행 : 홍기원 _문화행정, 숙명여자대학교</p> <p>발표 : “매개자로서의 예술가” 강윤주 _문화사회학, 경희사이버대학교</p> <p>토론 : “예술인 매개사업 째러보기” 양철모 _작가, 믹스라이스 노명우 _사회학, 아주대학교 진형우 _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단 김대근 _생활예술매개자</p>
제주 비엔날레 “소셜아트” 기획 및 참가	<p>구성원들의 일정상 4차예술혁명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강윤주와 이원재는 각각 “소셜 아트” 및 “투어리즘” 포럼 기획 및 사회자 역할로 참석하여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및 향후 4차예술혁명네트워크의 과제를 모색하였음.</p>

2) 활동평가

- “사회적 예술”에 대한 새로운 자리매김 및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예술”의 성과에 대한 아카이빙을 목표로 시작한 4차예술혁명네트워크 활동은 목표한 만큼의 성과 - “사회적 예술”에 대한 대중적 주목도 및 인지도 향상 - 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음.
- “사회적 예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예술가 및 현장 중심의 활동과 “사회적 예술”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양쪽의 장점을 극대화한 성과들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음.
-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스터디를 통해 “사회적 예술”에 대한 내부 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기대했던 바대로의 외부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어 2018년에는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자 함.

9. 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2017년 활동평가

1) 활동평가(표)

계획	결과
평창동계올림픽 대응 정기모임 운영	2017년 하반기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시민모니터링단, 평창동계올림픽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등으로 정기적 모임을 가짐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등 메가스포츠이벤트 관련 법제도 개선	교문위 국회의원실을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제안했으나 진행되지 않음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모니터링	평창동계올림픽 시민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리포트 2회 발간

2) 활동평가

(1) 총평

-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 활동 이후 메가스포츠이벤트 문제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연대모임의 활동이 잠정 중단되었으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연대모임 체계를 복원함
-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의 많은 문제들이 대회유치와 준비과정과 많은 관련이 있음. 결과적으로 대회 개막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시민운동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
-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이벤트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하자는 평화올림픽을 지지하는 입장과 대회를 진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잘 진행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뜻이 모아지지 않는 국면적 한계도 존재
-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모니터링 활동과 사후평가 및 평가에 따른 책임자 처벌 활동 필요

(2) 사업별 평가

① 평창동계올림픽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모임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평창동계올림픽반대 모니터링단, 지속가능발전센터
- 평창동계올림픽 반대 성화봉송, 올림픽 적폐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평창동계올림픽,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진행
- 단체별 관심사와 활동목표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 단체별 활동들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하는 형태의 느슨한 연대체 모델로 활동

② 평창동계올림픽 시민모니터링단 모니터링 리포트

-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행정과 기존언론의 여론몰이식 담론형성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목적을 위해 제안. 1호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짧은 논평을 하는 형식, 2호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보여주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도적인 추진방식에 대해 특집 기사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3~4인의 소수의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았음

10. 사무처 2017년 활동평가

1) 활동결과(표)

계획	결과
회의체계 안정화	집행위원회 회의(격주) 총20회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상근활동가 회의(매주) 총37회 상근활동가회의 개최 상/하반기 워크숍(2회) 상반기 조직진단 논의 및 하반기 워크숍 개최
운영시스템 정비	내규 정비 내규 수정(안) 작성 및 검토 중 활동가 교육 시행 문화사회론(1회) 및 신입활동가 교육 진행 문화연대 인적자원 관리 상근활동가 인사기록카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문화연대 네트워크 관리 연대활동 외 별도 네트워크관리 이루어지지 못함 재정 및 회계 관리 월별 재정결산 등 기본 회계관리 진행 각종 문서양식 제작, 적용 기존 문서양식 적용, 확대/적용에는 한계
홍보시스템 정비	홈페이지 리뉴얼 홈페이지 리뉴얼(11월) 뉴스레터 '문화빵' 재발행 뉴스레터 '문화빵' 재발행, 총31회 발행 문화연대 소개자료 제작 문화연대 소개 리플렛 제작(2,000부) 연락처 정비 후원의 밤과 연계하여 연락처 업데이트 SNS 관리 문화연대 소셜클럽(페이스북), 카카오페이지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도시락데이(주1회) 몇 차례 진행했으나 지속되지 못함 책임기모임(월1회) 총6회 책임기모임 진행 MT, 회식 등 MT 1회 진행
기타	회원사업 활성화 신규회원가입 선물 증정, 회원이벤트 등 진행 자원활동가풀 운영 1365자원봉사활동포털 재개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총9회 기획팀회의 진행, 분류체계 정비 완료 문화연대 매뉴얼 제작 매뉴얼 제작 미비, 2018년 계획으로 (재)추진 특위 활동지원 재정특위(회의1회), 평창동계올림픽 대응 진행 센터/위원회 협업활동 활성화 2017문화활동가대회, 문화연대아카이브 구축활동 2017 문화연대 후원의 밤 참가인원, 후원금 2배 가량 증가 문화연대 연간활동보고서 제작 2018년 2월 제작

2) 활동평가

(1) 총평

- 2017년 문화연대는 센터, 위원회 등 문화연대 내 기구를 중심으로 한 조직 강화 플랜을 가동하면서(이른바 '트리플3 프로젝트'), 기존 기구 중심의 조직운영의 한계로 지적된 기구 간 연계활동과 조직운영 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무처를 강화하기로 함. 이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사무처 상근활동가 1인을 충원, 집행위원장(1인)-사무처(2인)-총무(1인) 간 협력 체계를 구축.

- 사무처 상근활동가 1인 충원의 효과는 바로 나타남. 회의, 뉴스레터, 책임기모임 등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중요한 일상활동이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었고, 연락처 정비, 홈페이지 리뉴얼, SNS 관리, 문화연대 소개자료 제작, 자원활동시스템 복구, 회원이벤트 진행 등 수년째 단발적으로 진행하던 문화연대 활동홍보 및 커뮤니티 활동 등이 진행될 수 있었음. 특히 2017년 문화연대 후원의 밤은 사무처 활동이 안정화되면서 예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좋은 결과/평가를 얻음. '문화연대 조직 정비와 안정화'라는 기본목표는 달성.

- 반면에, '조직 정비와 안정화'를 넘어서는 사무처 중심의 사업기획은 부족했음. '회원-홍보-재정'을 잇는 기획사업이나 회원커뮤니티 활동 등은 아이디어 수준에서만 얘기되었을 뿐임. 또한, 문화연대 사무처가 기구 간 연계활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구 간 협업활동(2017문화활동가대회, 새정부 문화정책 제시, 문화연대 아카이브구축)이나 특별위원회 지원활동(평창올림픽특위, 재정특위) 등은 부분적으로 주도/참여하는 수준이었음.

- 문화연대의 사회적 연대활동을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조율하지 못한 점도 반성적 평가지점. 애초 사무처 활동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함. 각 활동기구의 사회적 연대활동과 문화연대 차원으로 진행되는 연대활동을 조율하는 한편, 이를 문화연대의 사회적 연대운동 전략으로 묶어내는 활동이 필요함.

(2) 사업별 평가

① 회의체계 안정화

- 회의는 비교적 안정적(정기적)으로 개최됨. 다만, 문화연대 의사결정구조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 회의와 상근활동가 회의의 논의력과 집행력에 대한 고민이 1년 내내 지

속됨. 기구별 활동내용 공유 외의 논의시간 확보 문제,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과 확인, 회의 미참석자에 대한 회의내용(결정사항 뿐 아니라 논의의 맥락까지)의 전달 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함.

-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2016년 31회에서 2017년 20회로 감소. 이는 주1회 개최에서 격주1회 개최로 바뀌었기 때문. 문화연대 집행위원들의 사회적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1회 개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 격주1회 회의의 참석률이 높지 않은 것은 문제(30~50%). 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② 운영시스템 정비

- 조직운영의 기본이 되는 각각의 운영 요소 정비에는 성공. 내규 수정, 활동가교육, 인사기록카드 및 근로계약서 작성, 기본 회계관리 지속 등 수년째 '과제'로만 남겨졌던 조직운영의 기본이 형성됨. 다만, 이를 '시스템화'하는 것은 미완성. 운영 요소 정비의 결과를 단순 공유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갱신(업데이트)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함께 적절한 '툴'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

- 또한, 운영시스템의 정비가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을 넘어 활동에 능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문화연대 네트워크 자원 관리' 등 2017년에 계획하였으나 진행시키지 못한 운영시스템 정비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③ 홍보시스템 정비

- 문화연대 활동 홍보와 관련한 2017년의 계획을 정량적으로 대부분 달성하였다는 것은 성과. 홈페이지 리뉴얼, 홍보자료 제작 및 뉴스레터의 안정적 발행 등으로 이후 문화연대 활동 홍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추게 되었음.

- 정성적인 평가, 즉 문화연대 활동 홍보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꼼꼼한 평가와 함께 2018년 활동계획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문화연대가 활용하고 있는 홍보시스템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원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문화연대 각 기구별 활동의 내용과 고민이 효과적으로 홍보되고 있는지. 뉴스레터 오픈비율/가독률/설문조사 정도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 또한, 각 기구별 활동과 홍보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홍보매체별로 운영방식, 새로운 홍보 활동모델 도입 등도 2018년에는 고려되어야 할 지점.

④ 커뮤니티 활성화

- 책임기모임과 같이 비교적 목표, 방법이 분명한 활동 이외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은 잘 이루어지지 못함.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커뮤니티 활동'은 실패가능성이

더 큼. ‘커뮤니티’의 범위 설정도 상근활동가, 집행위원 정도로 제한적이었음. 문화연대 활동과 연계한 커뮤니티 형성, 자원활동가/회원까지 대상을 확대한 커뮤니티 형성전략이 필요.

⑤ 기타

- 회원 대상 이벤트, 1365자원봉사활동포털 재개 등으로 몇 년째 침체되었던 회원/자원활동가 관련 활동을 시작. 아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시점이지만 꾸준히 진행된다면 ‘회원-자원활동-홍보-재정’을 잇는 중요한 활동이 될 것으로 전망.

- 목표로 한 아카이브를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1년 동안 꾸준히 아카이브 기획팀 회의(외부 전문가 포함)를 진행하면서 문화연대 아카이브 분류체계, 매뉴얼, 협업툴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 지점. 아카이브 구축은 확장성이 큰 활동(홍보, 발간, 문화운동아카이브로 확장 등). 또한, 2019년에 창립2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아카이브 기획팀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 있음.

- 2017 문화연대 후원의 밤은 사전 논의과정, 집행위원/상근활동가의 집중력, 정세변화 등이 어우러져 예년에 비해 큰 성과를 가져옴.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인만큼, ‘후원의 밤 준비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성과를 지속시켜나갈 수 있어야 함.

2017년 문화연대 재정결산

수입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회비	CMS	91,196,660	기타수입	오류입금	17,016,500
	CMS 연대사업비	50,652,820		기타수입	1,660,315
소계		141,849,480		이자	22,014
후원금	개인후원금	65,033,015		차입금	41,000,000
	단체후원금	48,151,665			
	후원의밤	58,108,000			
소계		171,292,680	소계		59,698,829
수입 합계				372,840,989	
전월 이월금				30,249,338	
수입 총계				403,090,327	

지출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인건비	활동비	132,864,189	사업비	연대사업비 ¹⁾	49,430,000
	상여금	1,300,000		공동체상영	965,000
소계		134,164,189		광화문캠핑	400,000
운영비	보험료(4대, 화재 ²⁾)	17,307,810		문화정책토론회	3,015,690
	임차료	4,738,922		총회	864,560
	통신비	5,440,150		복중답사	97,180
	수수료	82,000		조직운영	134,400
	소모품비	2,064,540		평창특위	90,000
	수도광열비	950,914		4차예술혁명	203,300
	회의비	1,819,870		기술미디어	66,800
	관리비	201,559		문화정책센터	22,500
	세금과공과	509,250		시민문화아카데미	20,500
	교육훈련비	452,400		아카이브	17,500
	도서인쇄비	1,050,000		문화활동가대회	559,800
	경조사비	500,000		회원사업	930,000
	이자	1,433,334	송년회	617,480	
	운반비	77,000	활동가워크숍	387,150	
	여비교통비	32,400	후원의밤	6,538,210	
	복리후생비	1,135,800	소계		64,360,070
	발송비	156,450	기타지출	CMS 연대사업비	50,137,820
				기타지출	1,213,880
				주택분담금 ³⁾	40,000,000
		오류반환		17,206,500	
		차입금상환 ⁴⁾		26,000,000	
소계		37,952,399	소계		134,558,200
지출 합계				371,034,858	
차월 이월금				32,055,469	
지출 총계				403,090,327	

1) 시민자치문화센터 단체후원금 : 41,000,000원 (82.9%)

2) 저축성화재보험 : 300,000원 × 33회차 = 9,900,000원 (2017년 12월 기준, 2020년 4월 만기)

3) 문화연대 공동주택 분담금 300,000,000원 중 120,000,000원 상환 (2017년 12월 31일 기준)

4) 차입금 잔액 : 15,000,000원 (2017년 12월 31일 기준)

감사보고서

문화연대 귀중

문화연대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제18차 사업년도의 결산감사를 2018년 2월 5일에 실시하여 보고 드리며, 2018년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합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감사를 위하여 문화연대 월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결산 보고서와 지출결의서 및 증빙등(통장거래내역 포함) 회계에 관한 장부를 열람하고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조회, 의견청취,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2) 회계감사 결과보고

예결산 총괄표는 정관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12일

감사 김 상 균

2018년 문화연대 활동계획

1. 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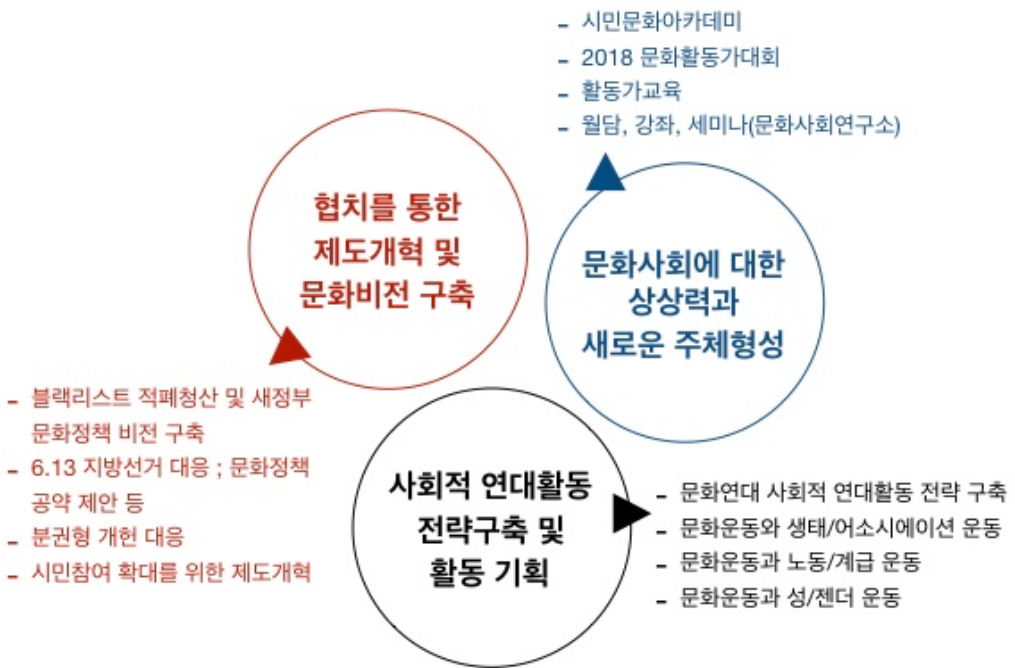
2018년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진전과 제도개혁,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주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임. 박근혜 탄핵으로 시작된 촛불혁명이 1년을 경과하는 해, 촛불혁명의 수혜를 입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시점, 6.13 지방선거와 분권형 개헌 논의 등 향후 5~10년의 정치/제도권의 흐름을 좌우할 굵직한 계기가 있는 해가 바로 2018년임.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 결과발표 및 대법원 판결,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 미투운동의 확산과 한국사회의 구조적/근본적 변화 논의 등도 2018년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정치/정세적 계기라 할 수 있음.

문화연대 내적으로는 2017년 활동의 성과를 잇고 이를 확장시키는 과제가 존재. 문화정책/행정의 개혁과 문화정책 비전구축이라는 과제, 시민자치와 대안문화, 생활예술, 기술혁명 관련 새롭게 제기되는 문화운동 현장에서의 활동,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확산될 메가스포츠이벤트 추진열기에 대한 대응, 문화연대 사회적 연대운동의 확장, 그리고 2017년 조직운영 안정화의 성과를 조직운영의 혁신으로 끌어가는 과정까지.

이러한 2018년의 정치/정세적 상황, 문화연대의 내부 과제 등을 고려하여 3개의 핵심운동의제를 선정하는 한편, 2개의 위원회를 신설하며 활동의 깊이와 범위를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음. 이를 통해 문화정책, 문화행동, 시민문화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예술인들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한국사회 곳곳에서 공감과 연대를 확장하는 한편, 문화사회를 위한 상상

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

1) 2018년 문화연대 핵심운동의제



(1) 협치를 통한 제도개혁 및 문화비전 구축

-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요청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혁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진전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내 변화의 흐름을 이어나가는 계획이기도 함.

- ①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및 새정부 문화정책 비전 구축
- ② 6.13 지방선거 대응 ; 문화정책 공약 제안 등
- ③ 분권형 개헌 대응
- ④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2) 문화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새로운 주체형성

-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 문화사회의 가능성을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상상하는 과정.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 형성.

- ① 시민문화아카데미
- ② 2018 문화활동가대회
- ③ 활동가 교육
- ④ 문화사회연구소의 월담, 강좌, 세미나 등

(3) 사회적 연대활동 전략구축 및 활동 기획

- 문화연대의 사회적 연대운동 전략 재구축 논의와 함께, 노동/계급, 생태/어소시에이션, 성/젠더운동과의 실질적/구체적 연대활동을 기획, 실행.

- ① 문화연대 사회적 연대운동 전략 구축
- ② 문화운동과 생태/어소시에이션 운동
- ③ 문화운동과 노동/계급 운동
- ④ 문화운동과 성/젠더 운동

2) 2018년 문화연대 조직구성

(1) 생활예술위원회, 체육문화위원회 신설

- '생활예술'의 개념 정립과 함께 관련 정책연구 등을 위한 활동기구 신설 ; 생활예술위원회
- 평창동계올림픽 평가,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열풍 대응 등을 위해 체육문화위원회 재설치
- 생활예술위원회,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는 문화정책센터에서, 체육문화위원회는 사무처에서 활동 지원 및 협력

(2) 문화예술계 성폭력사건 대응을 위한 문화연대 TF 설치

-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설치(2/19)

3차 집행위회의 결정사항).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지지, 연대활동과 함께 성폭력사건의 만연/반복을 초래하고 있는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활동 진행 예정

- ① 피해자에 대한 공감, 지지, 연대
- ② 성폭력, 갑질 등 문화예술계 내 권력구조로 인한 문제점 공론화, 원인/구조에 대한 분석
- ③ 구조적,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및 사회 변화를 위한 문화운동 전개
- ④ 문화연대 내 조직문화에 대한 성찰과 혁신

[2018년 문화연대 조직구조 - 3센터, 5위원회]



2. (사)문화사회연구소 2018년 활동계획

1) 활동 방향

- 연구 공간 마련을 주요한 목표로 가져가고자 함
- 유사한 학술 공동체 단위들과 네트워크 구성

2) 연구 공간 마련에 관한 계획

(1) '연구 공간' 마련

-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 후속세대인 연구자들의 재생산 유인

(2) '교육 공간' 확보

- 상시적으로 운영될 강좌 사업 공간 확보
- 인문사회과학적인 상상력과 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진 시민 교육 실시

(3) '복합 공간' 확장

- 연구·교육 기능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복합용도 공간
- 서적 큐레이팅 '독립 서점' + 방문자 자율 이용 공간
- 2019년도부터는 인문교양 콘텐츠 출판 사업도 추진

3) 연구 공간에 따른 기대 효과

(1) 학술운동의 거점

- 독립연구자들을 위한 거점 장소 공유
- 관련 전공자들을 위한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교육
- 준-전문적 수준의 인문사회과학 시민 교육

(2) 복합공간을 통한 시너지

- 사업에 참여하는 젊은 운영위원 및 연구자들의 역량 성장
- 대중 사업을 통한 후원회원 확충 → 연구·교육·학습 기능의 지속적 강화
- 연구-강좌-학습-교육-대중화-수익-연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

(3) 네트워크 효과

- 거점 활동에 기초한 자생적 토론 및 학습 모임 확산
- 강좌-세미나-토론모임의 순환적 연계를 통한 학술 의제 강화
- 사업 수익 등을 연구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자 재생산 시스템 창출

(4) 지속가능한 연구 활동

- 연계형 사업들을 통한 신진 연구자들의 공공적·시민사회적 역량 강화
- 인문교양 서적 출판 및 후원회원 확충 사업을 통한 재정 건전화
- 지식 전문화 및 대중화를 통한 진보적 학술 의제의 확산

3. 문화정책센터 2018년 활동계획

1) 활동 방향

- 문화정책(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감시개혁 및 제도개선 체계화
- 문화연대 문화정책 담론 및 전략 수립/공론화
- 문화연대 문화정책 전문가/신진 문화정책 연구자 풀 형성 및 활성화
- 문화정책센터 협력 위원회와 대외 연대 기구 협력

2) 주요 활동 계획

(1) 운영

- 문화정책 감시개혁 시스템 구축(감시개혁운동의 전문성, 일상성 강화와 대안제시)
- 정세 및 사회동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활성화
- 문화정책센터 문화정책위원회 재구성 및 안정화

(2) 활동계획

① 문화정책센터 기본 활동

- 문화연대 문화정책 보고서(단행본) 발행 : 상반기(지역문화), 하반기(문화국가)
- 지방자치단체선거 정책 대응 : 지역문화정책 보고서 발행(단행본 프로젝트와 연계), 주요 지방자치단체 정책 제안(서울시, 마포구, 성북구 외)
- 정세/사회동향 수집 및 분석 : 정책 관련 기사/자료 정리(주간 문화정책 브리핑), 월별 정책 의제 선정과 쟁점 토론
- 2차 생산물(발행물, 카드뉴스, 영상 등)의 공유와 확산 / 홈페이지 중심 플랫폼을 통한 아카이빙

② 신진 문화정책 연구자 pool 형성

- 젊은 문화정책 전문가 그룹 형성 : 문화연대 문화정책월간세미나, 문화연대 문화정책아카데미(상반기 1~2회) 등

③ 협력 위원회

- 문화정책위원회 : 문화정책센터 문화정책위원회 운영. 정책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
-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 생활예술위원회

④ 대외 연대 기구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공동대책위원회 (문화민주주의위원회)
- 메가스포츠이벤트 대응모임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 활동 목표

- : 공유지에 대한 공공적 가치 회복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 상생과 공유라는 가치에 기반한 대안공유지계획 수립 및 추진
- : 도시공간 개발에 대한 시민참여적 민주주의 경험 축적

- 주요 활동내용

- ① 경의선공유지 공간 활성화 및 개방적 운영을 통한 외연 확대 : 마켓, 시민강좌, 정기포럼, 공연 등
- ② 사무국 체계정비 : 상시적 활동을 통한 사무국 안정화, 상근 인력 관리
- ③ 대안공유지계획안
 - : 일시적 사용공간 확보 : 시민시장 외 각종 시설 등
 - : 앵커시설 유치 -> 시민연구센터 + 경의선숲길(시민)캠프
 - :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공유지 활용 위탁, 서울시와 추진위가 협약 체결
 - : 공공재원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춰 독립성 유지
 - : [상반기] 대안공유지계획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실현 경로 구축 : 간담회, 토론회, 지방선거 의제화
 - : [하반기] 경의선 대안공유지계획 시민추진단 구성(민관거버넌스) 및 타당성조사, 공청회, 대안공유지계획 추진계획안 수립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공동대책위원회 (문화민주주의위원회)>

- 활동 목표

- : 문화운동 관련 포괄적, 일상적 연대활동 기반 활성화 : 문화민주주의위원회 운영 기반 마련 및 활성화
 - : 문화정책 감시개혁 활동 : 블랙리스트 사태 대응 및 문화행정 개혁
 - : 사회운동 연대 활동 : 사회운동 현장 예술행동 네트워크 활성화
- 주요 활동 내용

- : 문화민주주의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 : 문화민주주의위원회 전국 네트워크 형성
- : 블랙리스트 사태 대응 활동 :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결과 집행(처벌, 제도개선 외), 민사집단소송 지원
- : 문화정책 감시개혁 활동 : 문화행정 제도개혁안 집행을 위한 현장 토론회, 예술행동 등

<메가스포츠이벤트 대응모임>

- 활동 목표
 - :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치기준 강화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견제 기능 정상화
 - : 실효성있는 메가스포츠이벤트 사후평가 제도와 책임자 처벌 강화
- 주요 활동 내용
 - : 국제경기대회지원법(유치절차, 사후평가제도) 개정안 추진
 - :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치 진행계획에 대한 대응

(3) 문화정책센터 협력위원회

①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문화정책위원회

[활동 목표]

- 문화연대 문화정책 전문가 풀 형성 및 활성화 : 문화정책위원회 안정화
- 문화연대 문화정책 담론 및 전략 수립 및 공문화 : 문화정책 단행본 발행
- 문화정책(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감시개혁 및 제도개선 체계화 : 문화정책 감시개혁 시스템 구축

[주요 활동 내용]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문화정책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 : 정책 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
- 문화연대 문화정책 보고서(단행본) 발행 : 상반기(지역문화), 하반기(문화국가)
- 지방자치단체선거 정책 대응 : 지역문화정책 보고서 발행(단행본 프로젝트와 연계), 주요 지방자치단체 정책 제안(서울시, 마포구, 성북구 외)
- 젊은 문화정책 전문가 그룹 형성 : 문화연대 문화정책월간세미나, 문화연대 문화정책 아카데미(상하반기 2회) 등

②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활동계획 참조

③ 생활예술위원회 : 생활예술위원회 활동계획 참조

4. (사)시민자치문화센터 2018년 활동계획

1) 활동방향

- 공공위탁 문화기반시설 3곳의 운영 안정화 및 내실화
- 생태문화운동의 새 거점, '에코라이브러리' 사업 추진
- 시민자치문화센터 조직 운영방식의 변화
- 재정 자립도 높이기

2) 주요활동계획

(1) 공공위탁 문화기반시설 3곳의 운영 안정화 및 내실화

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센터 내부의 안정과 역량 강화 : 일 문화 개선, 소통과 협업능력 향상, 운영위원회 등 협력/자문기구 활성화
- 센터 정체성과 역할 재정립 : 서울건가의 새로운 운영방향과 핵심사업에 대한 연구 및 공론화
- 감사 및 종합평가 준비 : 위탁 3년차를 맞아 여러 차례의 외부감사와 평가 진행 예정

②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 센터 외부협력 네트워크 만들기 : 생활예술, 제작문화, 생태문화, 문화예술교육 영역 활동가/기획자 연결
- 센터 중장기 플랜 세우기 : 공간과 공동작업에 기초한 주민 커뮤니티 모델 연구
- 센터 사업방향 안에서 타기관 공모사업 연계 : 1년차 사업비 부족, 2~3개의 공모사업 필수

③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 서울시교육청, 한국예술종합학교, 지식순환협동조합과의 단단한 파트너십 만들기
- 센터 외부 캠퍼스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 문화비축기지, 혁신파크, 세운상가, 더아리움, 플랫폼창동61 등
- 문화예술(시민)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아르떼 등의 전문기관, 전문가, 연구자 등

과 협력

(2) 생태문화운동의 새 거점, '에코라이브러리' 사업 추진

- 새로운 범주의 시민공간 사례 수집 및 연구
- 에코라이브러리 TF 구성 및 운영 : 사업제안서 만들기, 사업 파트너 찾기, 활동 커뮤니티 발굴 등
- 필요한 자원 마련 : 공공/민간자본 펀딩 + 시민운동(캠페인)과의 결합 모색

(3) 시민자치문화센터 조직 운영방식의 변화

① 법인 내에 회원 멤버십을 새롭게 만들고, 회원활동이 가능한 내부 환경 만들기

- 회원가입 대상 : 법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활동가, 기획자, 전문가, 연구자 등
- 회원 프로그램 마련 : 법인 소식 회원 메일링, 법인 회원 워크샵 등
- 년 1회 회원 정기총회 개최 : 사업단위별 활동 공유, 평가와 계획, 재정 결산, 감사 등
- 홈페이지 오픈 : 법인 소개, 법인 소식 및 자료 아카이브

② 공공위탁 문화기반시설 운영관리체계 개선하기

- 법인의 위탁시설 운영관리의 기준이 되는 '공공위탁시설 운영규정' 마련 및 적용
- 법인과 위탁시설 간의 공식적인 소통체계 마련 : 월 1회 센터장 회의
- 연 1회 위탁시설 법인 지도점검 추진
- 위탁시설 직원 교육 및 워크샵 기획 및 진행

③ 기타 조직체계 개선하기

- 이사회 활성화 : 이사 3~4명 총원, 격월 주기 이사회 개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절차 정착
- 외부 협력자들의 적극적인 내부화 : 자문위원회 설치 및 자문위원 위촉, 이슈별 특별기구 설치 활성화
- 사업과 재정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 사업감사, 재정감사 위촉

(4) 재정 자립도 높이기

- 이사와 회원, 자문위원 등을 포함한 후원구조를 만들고 안정화 하기

3) 2018년 재정계획

(1) 2018년 예상 수입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후원금	개인 후원금	16,000,000	사업비	위탁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293,554,199
	단체 후원금	21,000,000		위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279,371,000
				위탁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150,000,000
				용역	청소년 '삶·일캠프'	16,000,000
				용역	에코라이브리리 컨셉 컨설팅	5,000,000
				공모		
	소계	37,000,000		자체		
				소계	1,743,925,199	
기타수입	예금 이자	-				
	세금 환급	-				
	기타	-				
	소계	-				
수입 합계					1,780,925,199	
전년 이월금					34,437,913	
수입 총계					1,815,363,112	

(2) 2018년 예상 지출

항목	과목	금액	항목	과목	금액	
인건비	활동비	75,869,668	사업비	위탁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276,937,924
	상여금	400,000		위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279,371,000
				위탁	돌곶이생활예술문화센터	150,000,000
	소계	76,269,668		용역	청소년 '삶·일캠프'	10,000,000
운영비	세무기장료	2,500,000		용역	에코라이브리리 컨셉 컨설팅	3,000,000
	통신비	200,000		공모		
	수수료	2,000,000		자체		
	회의비	1,000,000		소계	1,719,308,924	
	세금	3,000,000				
	경조사비	-				

	발송/운반비	200,000		
	비품구입비	1,000,000		
	소모품비	500,000		
	교통비	300,000		
	인쇄비	500,000		
	교육 및 연수	500,000		
	예비비	84,520		
	소계	19,784,520		
기타 지출	과태료	-		
	기타	-		
	소계	-		
			지출 합계	1,815,363,112
			차년 이월금	0
			지출 총계	1,815,363,112

5.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2018년 활동계획

1) 활동 방향

- 2017년 사업 활동 방향으로 제시했었던 의제(1)새로운 환경에서의 미디어(산업)정책의 매핑과 아젠다 제시와 의제(2)기술+미디어문화실천 영역의 재구성 및 현실 개입의 방향 설정의 논의를 2018년에도 이어받아서 구체적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활동계획

(1) 운영

- 운영 안정화 : 한 달에 1회 정기 회의를 개최
- 연구 및 논의 활성화 : 상반기/하반기 포럼 개최 예정

(2) 활동계획

- ① 기술+미디어문화산업이 '기술담론'을 통한 성장동력에만 집중되는 상황을 비판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이 갖는 문제에 개입하고자 함
 - 14개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방송정책, 기술통신정책 마련 협의회 참여
- ② 기술+미디어산업의 종사자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대안을 마련
- ③ 기술+젠더+노동 담론을 구체화하는데 집중하고자 함
- ④ 언론지면을 통해 기고/성명서 발표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6. 분단문화연구위원회 2018년 활동계획

1) 활동방향

- 분단문화연구위원회 활동 정례화 및 정상화
- 모스크바 및 남한 내 분단문화 관련지 답사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남북 관계 조명
- 분단사회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예술가, 미디어 제작자 등 통해 분단문화 네트워크 형성

2) 주요활동계획

(1) 운영

① 분단 70년, 이제는 이 땅에서 남북 통합을 위한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 북한의 문화와 예술,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로 소통의 지평을 넓히고 남북문화 통합의 장을 위한 남북의 문화예술 강좌 개설

② 작년 조·중 접경지역 답사를 잇는 이번 모스크바 평화 감성 답사를 통해 사회주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에서 벗어나 외부 시선에서 분단 문제 조명

③ 북 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의제 확대

(2) 활동계획

① 토크 콘서트 : 분단된 마음 문화예술로 잇기: 통하라 남북문화예술

- 남과 북 예술교육의 출발
- 윤이상과 삼지연 관현악단
- 리얼리즘과 둘러싼 남과 북의 미술교육
-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영화
- 남북 지도자 사진에 나타난 프로파간다
- 남과 북 서정시 비교
- 평풍외교와 평화 그리고 스포츠

- 영화에 나타난 남한의 민주화 운동
- 북한의 시민사회 형성 가능성
- 통일 이후 문화적 사회통합 이야기

② 평화 감성답사

- 일정 : 2018.7.18-7.25(6박8일)
- 참석 인원 : 20여명 예상
- 붉은광장, 마야콥스키 박물관, 고리키집 박물관, 러시아 국립도서관, 러시아 국립미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름정원, 성이삭성당 등 견학 예정

③ 북 이탈주민에 대한 공권력의 인권침해 현황 및 대응 관련 활동

- 작년 박주민 의원실과 토론회 후속작업으로 국정원 적폐 관련 현황 정리
- 북 이탈주민 인권침해 사회적 의제화 사업

④ 분단문화연구위원회 운영 안정화

- 분기별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운영위원 : 권금상(분단문화연구위원회 위원장), 김화순(한신대학교 연구위원), 마석훈(새터민 청소년 공동체 우리집 센터장), 변상철(지금 여기에 사무국장)

7. 생활예술위원회 2018년 활동계획

1) 활동 방향

- 문화연대 생활예술위원회 발족 및 활성화 : 생활예술위원회 안정화
- 생활예술 전문가(활동가) 풀 및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 생활예술 이론/정책 연구 및 담론화
- 생활예술 거점 공간 마련 및 운영

2) 주요 활동 계획

(1) 운영

- 문화연대 생활예술위원회 발족 및 운영 : 워크숍, 세미나, 포럼, 토론회 등
- 생활예술아카데미, 생활예술캠프 기획 및 운영
- 시민자치문화센터 연계 활동(돌곶이센터, 창의예술센터, 이야기청 외)
- 생활예술지원센터 위탁 운영 추진(서울혁신파크+서울문화재단)

(2) 활동계획

① 생활예술 아카데미

- 생활예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공유하고 토론
- 상·하반기 아카데미 개최

② 거점 공간 마련 및 생활예술 관련 센터/기구 간 연계 활동

- 생활예술에 대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활동 전개
- 공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예술의 안착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8. 예술혁명네트워크 2018년 활동계획

1) 활동 방향

- 4차 예술혁명네트워크 명칭변경 : 예술혁명네트워크
- 예술혁명네트워크 운영안정화 및 활성화
- 파견미술, 현장예술등 예술과 사회의 관계 및 사회적 예술의 의미 재구성.
-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의 활성화 : 즉각적인 연대와 대응활동(파견미술행동)

2) 주요활동계획

(1) 운영

- 매달 기획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
- 문화연대가 지난 10여년간 함께한 파견미술팀이 네트워크운영주체.(미술/문학/사진/평론)
- 사회연대 속 문화행동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시대별(세대별) 네트워크 구성.
- 즉각적인 연대를 위한 즉각적 모임 및 연대 활성화

(2) 활동계획

- ① 문화연대 소식지 문화빵에 기고중인 파견미술 연재글 완성
- ② 시대별(세대별) 네트워크구성 및 4~5 차례의 간담회 또는 토론회진행
- ③ 사회적예술 또는 예술의 사회화등을 내용으로 발간물제작
- ④ 즉각적인 연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활동

9. 체육문화위원회 2018년 활동계획

1) 활동 방향

- 체육문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정화 : 운영위원 및 실무지원체계 구축
- 평창동계올림픽 평가 및 메가스포츠이벤트 관련 연구
- 체육계 만연한 비리, 폭력, 파벌 등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방안 제시
- 체육계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방안 연구

2) 주요활동계획

(1) 운영

- 운영위원 구성 및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격주1회)
- 실무지원체계 구축 : 문화연대 사무처 및 문화정책센터
- 자원활동체계 구축

(2) 활동계획

① 평창동계올림픽 평가토론회 개최

- 준비, 실행, 복원 및 사후계획 관련 점검
- 예상되는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치열풍에 대한 문제 지적
- 평창동계올림픽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현상(단일팀, 파벌, 왕따, 자원활동 등)에 대한 분석

② 일레포럼 개최

- 내부 논의 활성화 및 체육정책 개입의 계기
- 운영위원 및 자원활동체계 구축의 계기

③ 스포츠문화 관련 정거리포트 발행

- 평창동계올림픽 시민모니터링 리포트 후속 활동

④ 중장기 체육정책 연구

10. 사무처 2018년 활동계획

1) 활동방향

- 문화연대 조직운영 다음 단계로(1) ; 조직운영 주요 활동에 대한 기획력 강화
- 문화연대 조직운영 다음 단계로(2) ; 문화연대 운동의제와 연결되는 조직운영
- 문화연대 조직운영 다음 단계로(3) ; 문화연대 사회적 연대운동 전략에 호응하는 조직운영

2) 주요활동계획

(1) 운영

① 인력구성 ; 상근활동가 2인. 사무처장(1인), 사무처 활동가(1인)

② 회의

- 사무처 회의 ; 주1회. 사무처 활동조정 및 논의. 사무처 상근활동가 2인 참여
- 확대사무처 회의(신설) ; 주1회. '사무처, 연대활동, 총무 + 예술혁명네트워크, 분단문화연구위원회' 활동조정 및 논의. 연대활동과 총무를 센터/위원회 활동가가 겸직하고 있는 현실 반영. 확대사무처회의 참여 활동가가 담당하고 있는 센터/위원회 활동(상근활동가 1인 배치)도 함께 논의. 상근활동가 4인 참여
- 집행위원회 회의 ; 격주1회. 집행위원회의 논의력, 집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① 회의록 작성 및 공유 ; 기존 결정사항 중심의 정리에서 회의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② 회의자료 및 논의안건 사전 공유(최소 3일전) ③ 공유드라이브 혹은 협업툴을 통해 집행위원 등이 문화연대 현재 활동내용/진행경과 등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할 수 있게 함 ④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여부를 집행과 동시에 공지

③ 워크숍 및 총회

- 월별 평가회의(신설) ; 월1회. 문화연대 월별 활동결산 및 평가(집행위원회의, 상근활동가회의 연계)
- 상/하반기 워크숍 ; 연2회
- 2019 문화연대 정기총회 ; 2019년 2월 예정

(2) 활동계획

(2-1) 조직운영 체계화 및 기획력 강화

- 2017년 조직운영 안정화, 정비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면, 2018년 문화연대 조직운영은 이를 '체계화'하면서 동시에 조직운영 활동의 기획력을 강화하는데 있음. 2018년은 그 동안 후원회원 규모, 회원사업, 매뉴얼 제작, 활동홍보 등에서 보였던 한계를 넘어서는 한 해가 되어야 함.

①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 2017년 아카이브 분류체계 확정, 2018년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목표
- 기획단 구성 ; 구성 및 운영 중
- 2019년 문화연대 20주년과 연계하여 이후 관련 활동 기획할 필요 ; 주제별 분류, 인터뷰, 전시기획, 발간 등

② 기획력, 집행력 강화를 위한 협업/공유체계 구축

- 기획/실행/평가의 전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되, 역할과 책임은 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
- 사업 참여인원(집행위원, 상근활동가) 명시 + 기획단별 협업툴 구축 + 진행과정 공개 및 확인가능

③ 문화연대 매뉴얼 제작

- 문서양식 제작 및 적용
- 문화연대 활동 매뉴얼 제작 ; 연락처, 주요 활동별 매뉴얼(토론회, 기자회견, 사용법 등)

④ 회원-홍보-재정안정화 연계

- 별개의 사업으로 실행하던 '회원사업, 문화연대 활동홍보, 재정안정화'를 함께 연계하여 고민
- 문화연대 운동의제 홍보 -> (관심있는) 회원들과의 커뮤니티 활동 -> 후원조직을 통한 재정안정화 모색

(2-2) 문화연대 운동의제와 연결되는 조직운영

- 2018년 문화연대의 주요 운동의제인 (가칭)‘문화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새로운 주체형성’과 관련하여 2017년 기획하고 진행되지 못했던 ‘시민문화아카데미’와 올해 3회를 맞는 ‘2018 문화활동가대회’를 적극적으로 준비, 연결시킬 계획. 이 과정을 통해 문화연대의 내/외연을 확장시킴.

① (가칭)시민문화아카데미

- 시민들과 문화연대의 만남. 문화연대의 가치, 지향이 시민의 삶과 만나는 계기이자 시민의 삶에서 문화사회를 상상해낼 수 있는 계기
- 기획단 구성 ; 문화연대 집행위원, 상근활동가 + 외부 전문가, 자원활동가
- 10개의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목표

② 2018 문화활동가대회

- 문화활동가들과 문화연대의 만남. 2018년 문화연대 핵심운동의제 관련 프로그램 기획, 참여
- 기획단 구성 ; 문화연대 집행위원, 상근활동가 + 자원활동가

(2-3) 문화연대의 사회적 연대운동 전략에 호응하는 조직운영

- 2018년은 촛불혁명 1년을 계기로 더 많은 민주주의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이를 위한 주체형성이 중요한 사회운동의 과제가 될 것임(이미 사회 곳곳에서 요구/운동이 제기되고 있음). 사회운동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연계/연결하는 활동이 필요한 시기. 적/녹/보 연대, 생태문화포문네트워크 등 문화연대의 사회적 연대운동 전략에 기반한 문화연대 활동 기획이 필요.

① 문화연대 사회적 연대운동 전략 (재)구축

- 문화사회론 및 문화연대의 사회적 연대운동 전략에 대한 논의, 활동기획. 문화연대 활동가교육과 연계하여 추진
- 기획단 구성 ; 문화연대 집행위원, 상근활동가
- 대상 ; 문화연대 집행위원, 상근활동가 (시민문화아카데미, 문화활동가대회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음)

② 사회적 연대운동 기획 및 실행

- 노동운동과 문화연대 ; 현장예술행동, 문화예술계 갑질/노동권/인권 관련 캠페인 등
- 생태운동과 문화연대 ; 평창동계올림픽 평가, 어소시에이션 운동과의 연계방안 모색 등
- 페미니즘운동과 문화연대 ; 문화예술계 성폭력사건 대응, 권력구조 개혁 등

(2-4) 기타

① 문화연대 뉴스레터 ‘문화빵’ 발행

- 별도 편집위원회 구성. 문화연대 활동스케치 + 매체로서의 기능 강화

② 기본운영 안정화 및 인적/네트워트 자원 관리

- CMS, 회원, 인적자원, 회계, 연락처, 문자발송, 홈페이지, SNS, 홈페이지 등 관리운영 안정화

③ 책임기모임

- 활동가교육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월1회)

2018년 문화연대 재정계획

1. 수입계획

항목	과목	금액(원)	비고
회비수입	CMS 회비	100,000,000	
	CMS 연대사업	50,000,000	
후원수입	개인 및 단체 후원금	100,000,000	
	후원의 밤	100,000,000	
수입합계		350,000,000	
전년이월금		32,055,469	
수입총계		382,055,469	

2. 지출계획

항목	과목	금액(원)	비고
인건비	활동비	160,000,000	상근활동가 7인
	상여금	1,400,000	설날, 추석 상여금
	소계	161,400,000	
운영비	경조사비	500,000	

	관리비	200,000	공동주택 관리비
	교육훈련비	500,000	
	대출이자	1,400,000	주택분담금에 따른 이자지출(연2%)
	도서인쇄비	300,000	리플렛, 회원가입서
	발송비	200,000	
	보험료	17,500,000	4대보험, 화재보험
	복리후생비	1,000,000	
	세금과공과	500,000	
	소모품비	2,000,000	
	수도광열비	1,000,000	
	수수료	100,000	이체수수료
	여비교통비	100,000	
	운반비	100,000	
	임차료	5,000,000	복사기, 정수기
	통신비	5,000,000	전화, 인터넷, 회원관리프로그램, 문자발송 등
	회의비	2,000,000	
	소계	37,400,000	
사업비	사무처	8,000,000	후원의밤, 총회 포함
	센터, 위원회 사업	4,000,000	
	연대사업	27,000,000	시민자치문화센터 후원금 1,800만원
	소계	39,000,000	
기타지출	CMS연대사업	50,000,000	
	주택분담금 상환	50,000,000	주택분담금 1억8천만원 중 일부 상환
	차입금상환	15,000,000	차입금 전액 상환
	소계	115,000,000	
지출합계		352,800,000	
차기년도 이월금		29,255,469	
지출 총계		382,055,469	

임원인선(안)

직책	이름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공동집행위원장	이동연, <u>정용철</u>
집행위원	강윤주, 권금상, 김도형, 김상철, 김성윤, 박소현, 박찬국, 송수연, 안성민, 이광석, 이대택, 이동연, 이원재, 이종임, 정용철, 정원옥, 최준영, <u>함은주</u>
감사	김상균, <u>나영</u>
자문변호사	<u>김중휘</u> , 문건영, <u>이상희</u> , <u>이윤주</u>
사무처장	최준영
상근활동가	<u>김소담</u> , 김소형, <u>김재상</u> , 박선영, 신유아, 안성민, 이두찬, 이원재, <u>전혜원</u> , 최준영

2017년 문화연대 주요 활동일지

1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연대 1차 집행위회의(1/9)	[토론회]광장토론 07 '2017춧불에 바란다' (1/10) 광장극장 블랙텐트 개관식(1/10) 블랙리스트 버스(1/11)		
문화연대 2차 집행위회의(1/16)	[토론회]광장토론 08 '광장정치를 둘러싼 정세와 대응전략' (1/21)	[주간논평]문화예술교육 파행 예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강사지원사업 개약(1/19)	
문화연대 조직운영워크숍(1/23)	[시민자치]법인이사회(1/ 24) [토론회]광장토론 09 '대안언론과 광장의 정치'(1/24)	[주간논평]예술작품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 (1/26)	

2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연대 4차	[토론회]광장토론 10 '광장정치의 과제'		광장신문 4호(2/4)

	(2/7)
집행위회의(2/6)	[시민자치]문화활동가대 회 조직위원회 회의(2/9)
문화연대 5차 집행위회의(2/13)	[토론회]광장토론11 '적폐청산과 새로운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광장의 제안' (2/14)
2017 문화연대 정기총회(2/21)	[시민자치]문화활동가대 회 조직위원회 회의(2/27)

3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연대 6차 집행위회의(3/6)	[4차예술혁명네트워크]3월 회의 및 스터디(3/6)		
	[토론회]광장토론12 '박근혜 탄핵과 한국사회'(3/7)		
	광장극장블랙엔트 천막 해체(3/18)		
문화연대 7차 집행위회의(3/20)	[기자회견]광화문 캠핑촌 '낙달보름' 해단 기자회견(3/20)		
	광화문 캠핑촌 해단 (3/25)		
	[시민자치]홍대 관광특구 대책 마련 토론회(3/29)		

4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포럼]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을 위한		

	문화예술인 공개포럼(4/7)
	[시민자치]문화활동가대 회 '백가쟁명' (4/7)
	[4차예술혁명네트워크]3월 회의 및 스터디(4/7)
문화연대 8차 집행위회의(4/10)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1차 회의(4/13)
	재정특별위원회 1차 모임(4/19)
	[기자회견]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4/19)
	[토론회]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4/26)
문화연대 9차 집행위회의(4/24)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견학<NPO지원센터, 서울기록원,인권연구소 창>(4/26)
	[기자회견]콜트콜텍기타 노동자 부당해고 문제 해결 및 고공단식농성지지 기자회견(4/27)

5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예술단체-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선 문화정책협약식(5/4)		
	상근활동가 1차 책모임,<공유의 비극을 넘어>(5/10)	[성명]블랙리스트가 없는 국가, 문화민주주의가 꽃피는 새로운 정부를 기대한다 (5/11)	

문화연대 10차 집행위회의(5/15)	기업사회공헌사업의 동향 및 문화연대와의 연계 가능성<고대권, Kosri부소 장>(5/15)	[문화빵]1호 '<문화빵>, 다시 출발합니다'(5/17)
	[4차예술혁명네트워크]월 레포럼(5/22)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2차 회의(5/23)	
	[포럼]제1차 서드 라이프 월레포럼'서드 라이프란 무엇인가? /4차산업혁명 혹은 서드 라이프?'(5/24)	[문화빵]2호 '다시 출발한 <문화빵>,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5/23)
	콜트콜텍 광화문 농성 시작(5/27)	
문화연대 11차 집행위회의(5/29)	문화연대 상징/이미지 1차 모임(5/29)	[문화빵]3호 '매일 저녁을 문화연대와 함께? 특별했던 일주일을 소개합니다'(5/30)

6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상근활동가 문화사회론 교육<심광현 강의>(6/9)		[문화빵]4호 '아직도 한다! 콜트콜텍 수요문화제'(6/7)
문화연대 12차 집행위회의(6/12)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3차 회의(6/15)		[문화빵]5호 '문화연대 후원, 해주시겠습니까~'(6/12)
	[기자회견]블랙리스트 헌법유린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6/20)		[문화빵]6호 '문화연대 4대 협력활동을 소개합니다'(6/19)
	[4차예술혁명네트워크]6월 회의 및 스터디(6/20)		
	[포럼]제2차 서드		

	라이프 월례포럼 '뉴미디어 기술과 영화 /서드 라이프에서의 예술'(6/21)		
	상근활동가 2차 책모임, <상냥한 폭력의 시대>(6/22)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설명회(6/26)		
문화연대 13차 집행위회의(6/26)	[토론회]4차 산업혁명, 어디로? 기술사회의 비판적 상상력 긴급토론회(6/28)		[문화빵]7호 '문화연대 상근활동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6/26)
	문화연대 상징/이미지 2차모임(6/28)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4차 회의(6/29)		
	[포럼]새정부 문화정책의 혁신과 협치를 말하다(6/30)		

7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분단문화연구위원회]북- 중 접경지역 답사(7/3~7/9)		[문화빵]8호 '사람들과 함께 문화연대는 성장합니다'(7/3)
	[토론회]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대토론회 '청산과 개혁'(7/3)		
	문화연대 상징/이미지 3차모임(7/11)		[문화빵]9호 '북-중 접경지역 답사를 마치고'(7/10)
	상근활동가 3차 책모임, <모든 예술은 프로파간다>(7/14)		
문화연대 14차 집행위회의(7/17)	[기자회견]영화 <아버지의전쟁>		[문화빵]10호 '만남과 이야기를 만드는게 활동

	영화스टे프 및 배우 임금체불 소송청구 기자회견(7/18)	
	[포럼]제3차 서드라이프 월례포럼 '현실로 들어온 놀이 /모바일 인터페이스의 확장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미래'(7/19)	아니겠습니까? (7/17)
	[4차예술혁명네트워크]7월 회의 및 스터디(7/28)	[문화빵]11호 '문화연대와 함께 하는 사람들'(7/24)
문화연대 15차 집행위회의(7/31)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출범(7/31)	[문화빵]12호 '8월을 준비하며 7월을 마무리 합니다'(7/31)

8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토론회]블랙리스트 1차 판결을 다시 묻다 '조운선은 과연 무죄인가'(8/4)		
	[시민자치]돌곶이 생활예 술문화센터 개관행사(8/11)		[문화빵]13호 '행진에 나선 사람들'(8/7)
	영화 '파란나비효과' 공동체상영회(8/17)		[문화빵]14호 '기쁜 소식 여럿, 그리고 아쉬운 소식 하나'(8/16)
	상근활동가 4차 책모임,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8/23)		
문화연대 16차 집행위회의(8/21)	[포럼]제4차 서드라이프 월례포럼 '고시공화국의 서드 라이프 /디지털 파생상품으로서의 삶'(8/23)		[문화빵]15호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서 힘이 되는 친구' (8/21)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진상조사 업무 본격개시(8/24)		
			[문화빵]16호 '꾸준히 하는 것, 그 어려운 걸.. 하고 싶습니다' (8/28)

9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2017 문화활동가대회 (9/1~2)		
문화연대 17차 집행위회의(9/4)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6차 회의(9/6) [워크숍]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전체 워크숍(9/7)		[문화빵]17호 '2017 문화활동가대회, 끝은 또 시작을 놓고'(9/4)
	[4차예술혁명네트워크]9월 회의 및 스터디(9/11)	[논평]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공작정치를 즉각 수사하라!(9/12)	[문화빵]18호 '4번의 회의, 4번의 희망'(9/11)
문화연대 18차 집행위회의(9/18)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1차 대국민 보고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9/18) [토론회]제1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속토론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정을 위하여'(9/19) [토론회]제2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석토론회 '문학'(9/21) 상근활동가 5차 책모임, <사회 참여 예술이란	[성명]문화예술인 노동자선언 우리는 예술노동자다!(9/19)	[문화빵]19호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문화연대는!' (9/18)

무엇인가>(9/22)		
[토론회]제3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석토론회 '연극'(9/25)		
[시민자치]문화활동가대 회 조직위원회 평가회의(9/26)		
[기자회견]이명박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등을 위한 문화예술인 기자회견(9/26)	[문화빵]20호 '안녕하세요. 9월 마지막주 문화빵을 배달합니다'(9/25)	
[토론회]제4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석토론회 '영화'(9/29)		
[토론회]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국회토론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9/29)		

10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7차 회의(10/11)		
	[토론회]제5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석토론회 '시각예술'(10/13)		
	[시민자치]손끝창의학교 1일차(10/15)		
	[포럼]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향후 전망과 공감대	[성명]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활동 탄압에 대한	[문화빵]21호 '하늘은 높아지고 문화연대는 깊어지는 계절'(10/16)

형성포럼(10/17)

[토론회]제6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석토론회
'출판'(10/20)

[토론회]제7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석토론회
'무용&전통'(10/20)

상근활동가 6차
책모임,<TED영상시청>(1
0/20)

성명서(10/16)

[성명]적폐 청산과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인

선언: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10/17)

[시민자치]손끝창의학교
2일차(10/20)

[시민자치]손끝창의학교
3일차(10/21)

[시민자치]손끝창의학교
4일차(10/22)

문화연대 19차
집행위회의(10/23)

[시민자치]손끝창의학교
5일차(10/28)

[시민자치]손끝창의학교
6일차(10/29)

[문화빵]22호 '광화문
촛불, 벌써 1년'
(10/23)

[문화제]콜트콜텍기타노
동자 토크콘서트
'기타이야기 10년'
(10/31)

[문화빵]23호 '촛불
1년과 문화연대 ;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10/30)

11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기자회견]직장갑질119 출범 기자회견 (11/1)		
	문화연대 홈페이지 개편완료(11/2)		

	[기자회견]작년에 왔던 텐트, 죽지도 않고 또 왔네 ver2 '이번엔 이명박이다' (11/4)	[시민자치]광주 삶디자인센터 개관 1주년 행사(11/3)	[시민자치]손끝창의학교 7일차(11/4)
문화연대 20차 집행위회의(11/6)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8차 회의(11/8)	[문화빵]24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며 문화사회를 지향한다'(11/6)	
	[토론회]제8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연석토론회 '문화산업'(11/14)	[성명]예술검열기관으로 전락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깊은 성찰과 무거운 책임감 위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11/17)	[문화빵]25호 '문화연대를 응원하는 사람들, 손~~!' (11/13)
	[출판기념회]'두어른'발 간 축하마당 (11/24)		[문화빵]26호 '후원의밤 D-7일, 첫눈이 왔습니다!' (11/20)
2017 문화연대 후원의 밤 <문화연대가 당신에게 좋아요를 요청했습니다> (11/27)	[시민자치]이야기청 프로젝트 워크샵&전시 클로징(11/30)	[성명]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적폐세력 옹호와 문화예술계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11/27)	[문화빵]27호 '문화연대의 좋아요 요청을 수락해주세요~' (11/27)

12월

기본일정	주요 활동	성명 및 논평	발간자료
	문화연대 아카이브 구축 9차 회의(12/6)		[문화빵]28호 '2017년, 아직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12/4)
	[문화제]콜트콜텍기타노 동자 음반 발매 기념 '쇼케이스' (12/9)		
	[시민자치]돌꽃이 생활예		[문화빵]29호 '희망은

	<p>술문화센터 공유회(12/15)</p>	<p>꾸준함의 결과 ; 콜텍음반과 2017년 12월'(12/11)</p>
	<p>[시민자치]손끝창의학교 후반기 프로그램'사이보그 정글'1일차(12/19)</p>	
	<p>[시민자치]손끝창의학교 후반기 프로그램'사이보그 정글'2일차(12/20)</p>	
문화연대 송년회(12/18)	<p>[분단문화연구위원회]탈북 인 합동신문 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설명회(12/20)</p>	<p>[문화빵]30호 '2017년을 추스르고, 2018년을 준비합니다'(12/18)</p> <p>[문화빵]31호 '문화빵, 내년에 만남시다!'(12/22)</p>
	<p>[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4 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공동대응 회의 참여(12/21)</p>	
	<p>[시민자치]손끝창의학교 후반기 프로그램'사이보그 정글'3일차(12/21)</p>	
	<p>[시민자치]시민자치문화 센터 임시이사회(12/26)</p>	

문화연대 정관

1999. 09. 18. (제정)
2000. 02. 19. (1차 개정)
2001. 02. 03. (2차 개정)
2002. 02. 02. (3차 개정)
2003. 02. 15 (4차 개정)
2004. 02. 07 (5차 개정)
2005. 01. 29 (6차 개정)
2006. 02. 17 (7차 개정)
2007. 02. 23 (8차 개정)
2009. 02. 05 (9차 개정)
2017. 02. 21 (1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이름은 ‘문화연대’이며 영문표기는 ‘Cultural Action’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문화운동을 통해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화적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제3조(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공공문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마련
2. 문화관련 법제, 예산, 행정,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감시와 비판
3.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시민자치 문화활동 촉진
4. 문화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비판과 대안 마련
5. 본 단체의 목적에 맞는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6.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본 단체는 위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제5조(소재) 본 단체의 주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여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가입과 탈퇴)

1. 회원 가입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회원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본 단체를 탈퇴할 수 있다.

제8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내규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원)

1. 본 단체의 사업과 활동의 필요에 따라 특별회원 제도를 둘 수 있다.
2. 특별회원은 본 단체의 단기사업 관련자나 자료구독자, 후원회원 등을 말한다.
3. 특별회원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11조(징계) 본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단체의 활동을 방해한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절 총회

제12조(구성) 본 단체의 최고결기구로서 특별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13조(소집) 정기총회는 연1회 1/4분기 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나 회원 100인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제14조(기능) 총회는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4. 집행위원회 혹은 회원 50인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제15조(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단체 해산의 경우는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임원

제16조(임원)

1. 임원은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장, 사무처장과 센터, 위원회 등 각 활동기구의 장을 말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공동대표) 본 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여 본 단체의 활동을 이끄는 공동대표를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대표와 분야별 대표를 둘 수 있다.

제18조(사무처장) 단체 대내외적으로 실무 및 상근활동의 총 책임을 지며 조직업무총괄, 사업 업무총괄 및 대외 연대사업의 기획·조정을 한다.

제19조(감사) 본 단체의 사업과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2인내지 3인의 감사를 둔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구성)

1. 집행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과 임원들의 협의로 선임한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2.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소집) 정기회의는 매주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집행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서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개최되는 총회까지 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새로운 활동기구 및 부설기구 설치 및 해산
2. 각 활동단위의 운영 규칙에 관한 인준
3. 집행위원이 제안한 안건
4.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위촉
5. 기타 본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 집행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활동기구

제24조(활동기구)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기구들을 둔다.

1. 센터 및 위원회 : 본 단체의 활동과 사업을 실행 추진하는데 필요한 활동기구를 둘 수 있으며, 각 활동기구는 그 안에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문화사회연구소 : 본 단체의 독립법인 연구소로 문화적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연구활동을 한다.
3. 시민자치문화센터 : 본 단체의 독립법인 기구로 문화적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문화예술활동을 한다.
4. 법률자문단 : 본 단체의 자문변호사들로 구성하며 문화 각 부문의 법령에 관한 문제제기나 법률상담, 소송 등의 활동을 주관한다.

제25조(특별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26조(전문위원) 각 활동기구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자문위원) 본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8조(회계 연도) 본 단체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예·결산)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0조(수입)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31조(수익분배) 본 단체의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준용 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민주주의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제33조(단체 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분) 본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6장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문화연대 성차별·성폭력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

2008년 2월 29일 제정

제 1 조 (취지)

본 규정은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성차별·성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성평등한 문화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성차별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 행위자와 이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 3 조 (적용)

① 본 규정은 본 회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신고자 중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본 규정의 제정·공포되지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미해결된 사건으로 사건의 당사자들이 본 규정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제 4 조 (사건의 성립)

① 사건을 알고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 본 사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활동가나 집행위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사건을 알고 활동가와 집행위원은 신고된 모든 사건을 본 단체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② 신고인은 피해자에 준한 비밀유지와 보호를 받는다.

③ 신고는 서면, 전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단체 외부인에 의한 신고도 접수한다.

제 5 조 (사건 해결의 원칙)

- ①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란, 본 규칙에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1차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가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② 본 단체는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의 해결을 원만히 하기 위해 피 신고자를 격리하고 피해자의 활동과 상처 치유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 ③ 본 단체의 회원은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지원해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 ④ 본 단체의 회원은 제 3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 성폭력 해결을 위한 활동에 임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연대망을 구성해야 한다.
- ⑤ 사건의 성립과 해결 과정에서는 철저히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존중한다.
- ⑥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또 다른 가해 행위와 제 3자에 의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의 공개여부와 공개수위, 가해자 공개 여부 등은 피해자와 대책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대책위원회)

① 구성

1. 피해자가 요구하는 상근활동가 또는 집행위원회 중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대책위원회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2. 피해자가 요구하거나 대책위원회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본 단체 회원이 아닌 사람도 대책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3. 대책위원회의는 최종 신고 이후 7일 이내에 구성한다.

② 역할

1. 대책위원회는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피신고자 면담,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관련 의무 수행 여부까지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대책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단체에 보고하고 처리를 요청한다.

③ 권한

1.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필요할 경우 피 신고자에 대해 격리를 비롯한 제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대책위원회는 본 단체와 회원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련인의 소환을 명할 수 있으며 본 단체와 모든 회원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와 지원, 가해자에 관련된 제반의 조치 등을 본 단체와

회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할 시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대책위원회는 구성 2달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1회(30일)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대책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다.

제 7 조 (피해자에 대한 규정)

① 본 규정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피신고자에 대한 격리를 요구할 권리
4.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
5.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6. 사건의 진행과정 일체를 알고 있을 권리
7. 사건의 공개여부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비롯한 제반의 조치를 요구할 권리.
8. 피해자에게 필요한 제반의 지원 사항들을 요구할 권리.

③ 본 규정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이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④ 본 단체는 피해자가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연계와 활동과 병가 등 휴식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조치들을 수행해야 한다.

제 8 조 (가해자에 대한 규정)

①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는 대책위원회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본 단체는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제반의 활동 이수
3. 기타 본 단체의 내규에 따른 활동정지, 직위해지, 제명 등의 징계.

③ 가해자의 의무

1. 가해자는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반의 징계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사건의 해결과정과 징계 과정에서 또 다른 가해 사실이 밝혀졌거나 징계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가중처벌한다.

④ 2차 가해

1. 2차 가해라 함은 제 3 자가 가해자에 동조하는 발언, 행위,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자도 동일한 과정에 의해 처리된다.

제 9 조 (공동 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단체의 회원이나 자원활동가가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회원이나 자원활동가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 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 ② 피신고자나 가해자가 본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 본 단체는 피신고자나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의 3조에 근거하여 피신고자/가해자에 대한 제반의 조치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예방교육)

- ① 본 단체는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성차별·성폭력 예방 교육을 비롯한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② 본 단체의 상근활동가와 집행위원은 관련 교육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2월 29일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직후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한다.